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 석사학위논문

1950년대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한 한국의 자기존재 인식 연구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류 윤 영

1950년대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한 한국의 자기존재 인식 연구

지도교수 최 정 운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류 윤 영

류윤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위 원 장 _____ 신 욱 희 (인)

부위원장 _____ 박 성 우 (인)

위 원 _____ 최 정 운 (인)

국문초록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휴전된 직후 한국은 인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여 재건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국가였다.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가 전쟁까지 겪게 되자 전쟁이 끝난 직후 곧바로 재건해야 한다는 의식은 생기지 않았다. 개인과 국가 모두 생존의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눈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자기존재를 스스로 깨닫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발전 모델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1950년대 중후반의 한국이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문화 현상과 문학 작품들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1950년대 중후반 한국은 후진적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가?”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전쟁 직후 가난한 한국이 어떻게 현재 경제대국이 되었는지에 대해 경제성장과 관련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이 재건의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본격적으로 재건을 시작하게 된 선행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까닭은 국가 존재의 인식 문제와 직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 후진적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이를 벗어나려는 의식적 자각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국민과 국가 존재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투명인간과 같이 미미한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은 국제무대에 1954년에 개최된 제네바 회담의 의제 중 하나는 한국의 평화 통일 문제였으나 회담의 개최여부부터 방식, 결과 등에 한국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해인 1955년에 열린 반둥회의는 냉전 체제에서의 신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제3세계 국가들의

저항 의식을 보여주는 회의로, 참가국 대부분이 식민지 경험이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는데, 같은 처지였던 한국은 초청조차 받지 못하였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 개인의 존재 가치는 크게 상실된 상태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규모로 주둔했던 미군의 허드렛일을 해주며 의식주를 해결했던 하우스보이, 미군을 상대하면서 멸시를 받았던 양공주 등 전후 한국의 독특한 사회현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든 인정받을 수 없었기에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국인의 열망이 서구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중후반 한국 사회에서 신문, 잡지, 소설, 대중가요, 영화 등에 만연해 있는 서구 문화에 대한 환상을 찾아보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당시 한국의 후진적 현실을 잊어버려는 한국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서구 문화를 선망하고 모방하려는 시도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는 곧 후진적 현실에 대한 자각, 각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1950년대 후반 몇몇 소설 작품에서 지식인의 각성이 잘 나타나 있다.

결국 1950년대 한국이 국제사회의 접촉을 통해 자기존재를 깨닫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는 발전 국가 모델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상을 경제적 측면이 아닌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주요어 : 한국전쟁, 국가정체성, 국가계급, 전후 문학, 국제사회
학 번 : 2015-22497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검토	5
3. 연구 방법과 자료	9
4. 연구의 구성	11
II.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한국	14
1. 제네바 회담	14
2. 초청받지 못한 반동회의	22
3. 국제적으로 느끼는 국가 존재의 소외감	25
III. 독특한 전후 문화의 출현	28
1. 아프레걸	28
2. 하우스보이	34
IV. 서구 문화권력 행사의 장	38
1. 외국의 원조 : ‘도움’과 ‘조종’의 양면성	39
1) 한국의 절대적, 상대적 빈곤 현상	39
2)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 본질	41
2. 서구 문화의 ‘이식(移植)’과 ‘추종(追從)’	46
1) 1950년대 한국의 영화산업	46
2) 한국영화 속에 나타난 서구문화의 화려함	49
3) 미 8군 쇼에서 태어난 한국 대중음악	54

V. 문학 작품에 나타난 좌절과 절망	58
1. 전후 문학의 성격	58
2.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군소리의 의미』	59
3. 최인훈의 『회색인』	66
VI. 결론	75
참고문헌	78
Abstract	84

표 목 차

표 1	1954~1959년 국제개발처 원조수입액	40
표 2	1957년 국제개발처 원조수입액	42
표 3	1950년대 연도별 국내 영화 상영 편수	44
표 4	1950년대 연도별 국내 영화 제작사 수	45

I. 서론

1. 문제 제기

국제사회는 국가들이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는 복합적인 사회 공간이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고 불균형한 구도를 이루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 협력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표면적으로 표출되면 전쟁, 동맹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긴장관계가 외교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긴장관계 구도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문화와 같은 측정할 수 없는 파급력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차지하는 위치는 물리적인 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비가시적인 요인들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령 국제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들의 의자는 모두 같은 크기로 놓여있지만 그들이 대표하는 각 국가들의 위상(international status)의 크기는 다르다. 그 이유는 국가 간의 관계 구도 내에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힘이 국제 관계를 설정하는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주로 국가 간 관계의 불균형성을 물리적인 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 군사력, 경제력, 인구, 영토 등과 같은 가시적인 힘의 요소 이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존재한다. 이 요소들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자연스레 국가 간의 관계를 지배-종속의 관계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한국전쟁 직후 한국이 서구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구 문화를 선망하고 후진적 현실을 자각하는 양태를 들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¹⁾이 성립한 후 한국은 그야말로 아무 것

1) 1953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처음 열렸고, 최종 휴전협정이 성립한 1953년 7월 27일까지 765차례의 휴전회담이 열렸다. 휴전회담이 열리는 기간에도 남한과 북한의 군부대가 점령한 지역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되었다. 1955년 10월 8일 폐허가 된 한국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에서 파견된 각국의 대표들이 한국에 시찰을 나왔다. 그런데 인도의 대표자였던 메논(Menon)이 한국의 모든 것이 파괴된 그때의 상황을 일컬어 “만약 한국이 부흥을 한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단적인 표현이지만, 타국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당시 한국은 재건을 꿈 꿀 수 없을 만큼 가난에 허덕였고, 사회적 혼란은 극심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거의 국가 존속이 어려울 만한 수준이었다.²⁾ 가난 속에 공산주의가 스며들까 두려워 미국은 남한에 전폭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대미의존도가 경제적으로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한국의 외교활동은 미국의 후원과 안내 하에 전개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미군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주둔하게 되면서 미군들을 통해 미국문화가 한국에 전파되었고, 교육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의 선진문화에 대한 정보 입수가 주로 미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한국은 국가의 정체성이 결여된 채, 다른 국가에 의존하여 겨우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미 공식적인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제3세계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위성국가’³⁾나 다름없었다. 1955년 4월 18일 인도네시아 반등에서 열린 반동회의⁴⁾는 한국의 위성국가(satellite states)적인 면모

2) 한국전쟁의 인명피해는 약 450만 명(남한-200만, 북한-250만)으로 추산되며, 2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10만 여명의 전쟁고아,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하였는데, 한국전쟁 당시 피해 총액은 약 4105억 환(圓)이었다. 당시 1달러가 60환이었던 점을 고려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조 9000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였다. 당시 서울의 총 피해액은 약 1769억 환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해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컸다.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검색일: 2018년 4월 22일)

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의 지휘 하에 있던 동유럽권의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을 주로 ‘위성국가’라 일컫는다. 보편적 의미로는, 강대국의 주변에서 강대국과 같은 정치 체제를 갖고 강대국의 지휘 하에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의 행위에 동조하는 행동을 취하는 국가를 말한다.

4) 이 회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29개국이 참여하였는데 식민지 해방과 중립주

를 보여준 역사적 사례였다. 이 회의는 제3세계 국가들이 유엔의 회원국 중 하나로 다른 국가들과 함께 동등하게 가입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였지만 한국은 소련의 반대로 유엔가입이 좌절되었다. 반동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한국은 반동회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미국의 입장과 동일한 태도로 언론에 반동회의를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제세력 확대의 호기(好機)로 보도하였다.⁵⁾ 국제회의에도 초청받지 못했던 일조차도 미국의 시각에서 합리화해야만 했던 한국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투명인간과 다를 바 없었다.

한국전쟁 직후 처음 서구 문화와의 접촉은 하루하루 연명을 위한 구걸이었고, 배고픈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상적인 세계, 즉 비참한 현실을 잊기 위한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서구 세력이 풍기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자유의 이미지는 점점 한국인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외국어를 써야만 세련되고 유식해 보였고, 각종 광고와 노래, 상품의 표지에는 외국어가 넘쳐났다. 몇몇 한국 지식인들은 외국 유학을 다녀오고, 잡지나 신문에 외국에 대한 찬양하는 동시에 한국의 비참한 현실을 환기시키는 글을 기고하면서 서구가 우월한 가치와 제도를 가진 나라임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범람하는 서구 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원초적 모습에서 벗어나 서구 문화에 대비되는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한국의 후진적 현실을 깨닫는 것은 타자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면서 정체성을 찾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국제 사회 내 국가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과 같다. 한국 전쟁 직후부터 1959년까지의 한국의 국제 사회 내에서 계급적 위치를 깨닫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으며, 이 고통이야말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 존속을 위한 국가 간의 치열한 투쟁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중후반 한국 사회에서 신문, 잡지, 소설, 대중가요, 영화 등에 만연해 있는 서구 문화에 대한 환상을 찾아보고, 그 환

의를 강조하고 제3세계 국가들이 강대국들에 대항하여 독자적 세력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평가받았다.

5) 『경향신문』, 1955년 3월 22일

상으로 말미암아 당시 한국의 후진적 현실로부터 비롯한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당대 한국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950년대에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대중 매체가 등장하여 한국인들에게 서구 문화를 널리 소개함으로써 이를 선망의 대상으로 각인시킨다. 하지만 선진적 서구 문화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국가의 모습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방황했고 좌절했다. 후진적 현실을 마주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서구 문화의 환상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어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가령 신문에 실린 해외 여행기를 읽으면서 마치 그 곳에 있는 듯 황홀해지고 잡지에 실린 세련된 외국 배우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한 외국어를 읊조리곤 했다.

결국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후진국 탈피를 열망하는 지식인들이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분노를 표출하지만, 분노의 감정에 이르기 전까지의 한국인들은 무기력하였다. 한국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한국인들은 수없이 멸시를 받았고 존재의 고통을 느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국가 간 계급투쟁은 전쟁보다도 더 무섭고 지배 국가의 문화, 정치 등의 파급력이 훨씬 크다.⁶⁾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 한국이 겪었던 존재를 둘러싼 고통과 시련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한국의 존재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것, 국가적 존재 가치의 부정과 경멸, 심지어 한국인 스스로도 국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 힘들었던 상황들을 통해 1950년대 한국의 후진적 현실의 단면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6)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저서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에서 “우리는 반드시 제국에 대한 향수를, 제국주의가 그 피지배자들에게 불러일으킨 분노와 원한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제국 지지론이나 제국 합리화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국의 상상력을 배양한 문화를 신중하고 포괄적으로 보고자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는 19세기 말까지 문화적 현상에 완벽하게 구현되었고, 우리가 여전히 축하하고 있는 문화라는 것은 그다지 유해하지 않게 된 제국주의 문화에 불과하다.”라고 역설하였다.

2. 기존연구 검토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한국에 대한 연구는 크게 한미관계, 이승만 정권의 특성, 반공 이데올로기, 제네바 회담⁷⁾, 북송문제, 한일관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에 가장 깊게 관여했던 미국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상황, 문화, 경제 등을 미국과의 관계와 연결지어 연구한 논문들이 대다수이다. 냉전이라는 구조적 환경으로 인한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따른 한미 관계의 양상⁸⁾과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구상⁹⁾ 및 반공 이데올로기¹⁰⁾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이 있다.

1950년대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정치, 경제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미국식 정치, 경제 구조를 한국에 어떻게 이식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겪는 국가 존재의 문제, 국제관계에서의 보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오로지 국가 간 관계

-
- 7) 기존의 제네바 회담에 관련된 연구로는 제네바 회담에서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된 입장, 제네바 회담이 1960년대 이후 동남아의 열전이 동북아 냉전에 미친 영향, 제네바회담에서의 한국통일문제의 종결 과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홍용표, “1954년 제네바 회의와 한국 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8권, 1호. pp35-55. 김연철, “1954년 제네바 회담과 동북아 냉전질서.” 『아시아 연구』 제 58권 1호. 2011. 권오중, “제네바 한국평화회담(1954)의 진행, 결과 그리고 의미.” 『통일정책연구』제 14권 2호. 2005. 참조
 - 8) 신옥희,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6권 1호, 2004. 차상철,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13권. 2001. p.121-167.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39호, 2005, p.221~276. 장준갑,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한반도정책(1953-53) : 냉전 외교의 한계”, 『미국사연구』 15권, 2002. p133-155. 이완범,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0권 2호, p.199-229
 - 9) 차상철, “이승만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미국사연구』, 29권. 2009. p.97-121. 김영호, “이승만의 국제정치관에 관한 연구: 일본내막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권 1호. 2016. p.123-149. 서희경,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 연구: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제45권 2호, 2011, p.51-71
 - 10) 주철희, “한국전쟁 전후 반공문화 형성과 그 의미: 반공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9권, 2016, p.3-40. 이하나, “반공주의 감성 기획, ‘반공영화’의 딜레마 -1950~60년대 ‘반공영화’ 논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제 159권, 2012, p.53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 내 정치, 경제 문제에만 국한하였다. 이는 결국 한국이 미국의 '위성국가'라는 존재 양태를 재생산해내게 되었다. 김양화¹¹⁾는 미국과 이루어진 경제협정은 '원조와 종속의 메카니즘'이라 단적으로 밝혔고 허은¹²⁾은 미국이 친미 엘리트를 생산해내기 위한 구조를 어떻게 구축하였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 이후에도 친미적 지배층이 존속되길 원하였다. 한국 사회의 친미 엘리트층을 재생산해내는 구조를 창출해내기 위해 미국으로 보내 한국의 젊은이들을 교육시켰고 이후 한국 사회는 친미주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선미¹³⁾는 1950년대 한국사회는 미국문화의 유입이 주로 미군¹⁴⁾, 교회, 미국영화, 미국유학을 통해 전파된다고 말한다. 친미적 네트워크가 강한 미션스쿨인 연희대학교를 중심으로 미국 문화가 유입되는 양상을 소개하였는데, 미국대학의 제도나 문화를 모방함으로써 친미주의적 재생산구조를 자발적으로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연희대학교(현 연세대학교)는 사적인 인맥을 통해 마련되었던 미국대학의 문화 환경이 1950년대 대학생이 특수한 계층이라는 인식과 더해져 대학문화, 즉 미국문화는 '교양'인 듯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맥락의 기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한국이 서구 문화를 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재구성해나가는 일련의 과정들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총체적으로 한국은 1950년대에 대내외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 원인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봉범¹⁵⁾은 "1950년대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정치적 폐쇄성(경직성), 경제적 낙후성(대외의존성), 문화적 역동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즉,

-
- 11) 김양화, "한미수교 110년, 조약을 통해 본 불평등의 역사 1950년대 경제협정", 『역사비평』, 1992
 - 12) 허은,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교육교환 계획과 한국사회 엘리트의 친미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 44집, 2005, p.229-265
 - 13) 이선미, "1950년대 미국유학 담론과 대학문화-연희춘추의 미국관련 담론과 기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 25호, 2009, p.235-272
 - 14) 미군을 통해 유입된 문화를 흔히 'GI 문화'라 일컫었다. GI는 Government Issue의 약자이며, 미군 병사를 뜻한다. 정확한 어원은 양철통(Galvanized Iron)으로 알려져있다.
 - 15) 권보드레 외,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9) 프롤로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반공사상으로 고정되어 있고,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을 미국의 경제 원조로 운영하는 데 반해,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등 대중매체들이 대중문화 발달을 이끌면서 문화적 역동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1950년대 한국의 대내외적인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나 그 이면에 속한 문화적 역동성에 대한 논의는 저조하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한국의 “1950년대 삶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요소”이므로 정치, 경제, 문화의 구조적 상관성 하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국의 원초적 모습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치, 경제, 문화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이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즉, 한국인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삶을 이어나갔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오로지 외교문서, 국가의 검열 하에 있는 출판 매체를 통해 살펴본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문서에 등장할 수 없는 양공주¹⁶⁾, 하우스보이 등 전후 한국인들의 비참한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연구는 드물다. 전쟁 후 자기 존재의 각성과 국제사회 속 한국의 후진적 현실을 결부시켜 통찰하는 연구는 미미하다. 연구의 층위가 다를뿐더러, 이를 결합시켜 연구하는 총체적 접근은 시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전쟁 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화 현상 혹은 사례(양공주, 하우스보이, 대중가요, 영화 등)를 하나 선정하여 그 현상과 사례가 나타난 원인을 국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전후 문화 현상은 공식적인 문서보다는 신문, 잡지, 회고록, 문학 작품 등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분석 매체를 문학 작품과 영화에 한정시키는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16) 강경화, “양공주의 자기인식 양상과 삶의 방식에 대한 고찰 - 해방기와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71집, 2017, p.5. 허윤, “1950년대 양공주 표상과 변전과 국민되기 -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1권 1호, 2013, p.257. 김준현,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 관련 풍속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 ‘유엔마담’과 ‘양공주’에 얽힌 대중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 59호, 2016, p.41-68. 정재림, “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46호, 2012, p.457-478. 홍윤표, “한일 전후 소설에서의 ‘팡팡’과 양공주 표상: 전쟁 기억의 재현과 은폐”, 『아시아문화연구』 40권, 2015, p.207-235

한국의 19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해 학술적 연구 자료의 파괴 및 연구진행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시기였고 지식인들마저 눈앞에 놓인 생존의 문제에만 급급했을 뿐, 허무주의와 반지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문학작품들을 충분치 못한 1차 자료들을 대변할 수 있는 텍스트로 판단하였다. 가령, 이인직의 『혈의 누』와 이광수의 『무정』에서 주인공들이 구국의 열정을 안고 미국으로 향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서구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다. 당시 미국이 친미 엘리트 생산을 위해 사회의 엘리트 계층을 대대적으로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한국인은 한국에 돌아와 행정, 교육, 군사 부문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미국식 행정, 교육, 군사 구조가 이식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유학은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던 일반인에게는 꿈꿀 수 없는 것이었지만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 신분상승을 노리는, 실현되지 않을 아메리카 드림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환상은 곧 절망과 좌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절망과 좌절의 감정은 1950년대 중후반 소설 속에서 잘 나타나있다. 최정희의 소설 『끝없는 낭만』에서는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이 미군과의 낭만적 사랑을 통해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경험하지만, 민족국가의 가부장적 권위에 부딪혀 욕망을 부정당하고 끝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영중¹⁷⁾은 미국의 선진적 문명, 체제 등에 선망의 시선을 보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미국 문화에 대한 욕망은 방향감 상실과 자기 환멸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당시 한국 사회의 맹목적인 서구 문화 추종은 비참한 현실 자각과 함께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진다. 그 중에서도 손창섭과 최인훈의 소설을 분석텍스트로 선택한 이유는 미국문화가 유입되면서 한국사회에 나타난 기형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풍자하기 때문이다.

17) 주영중, “박인환 문학의 미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 연구-1950년대 시와 산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 69호, 2015, p.585-614

3. 연구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국가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사, 외교정책연구 보다는 국제 사회 내에서 한 국가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반대로 그 국가는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해 나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지성사 연구이다. 우선 “전쟁을 겪은 국민들이 어떠한 경로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큰 틀 속에서 연구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역사 사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보다 훨씬 지나서 재구성된 것이므로 당시의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한국 전쟁 이후의 한국 정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자료들은 이미 한차례 가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정운 교수는 『한국인의 발견』에서 역사적 사건들에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유사한 사건들을 분류하여 이름을 짓는 방법으로 이런 접근법은 심도 있는 의미를 추출해내지 못한다. 두 번째 방식은 ‘객관적 분석’으로 주로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수치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려는 방식이다. 이 접근법은 “어떤 집단을 전략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고, ‘타(他)’라기보다 ‘적(敵)’으로 상정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또한 역사의 의미를 추출해내기 어렵다. 마지막 방식은 ‘들어가며 느끼기’로, 역사적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느낌, 경험 등의 진실성에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역사란 의미 있는 경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역사의 참여자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실증주의적 역사 연구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건의 자료들을 “예술작품과 같은 해석(interpretation)”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재현(representation)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¹⁸⁾

한국의 근현대사는 “서구 사상을 도입하기 시작한 근대부터 사상 연구를 위한 텍스트가 거의 생산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대체할 텍스트는 예술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문학 작품은 우리 사회의 사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다.¹⁹⁾ 본 연구는

18) 최정운, 『한국인의 발견』, (서울: 미지북스, 2016), p.26-29

주로 영화, 시, 소설 등의 예술 작품에서의 시대정신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혹은 국제 사회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속해있었는지를 외교문서와 국외신문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한국과 가장 많은 대외적 교류가 있었던 미국과의 외교기밀문서(FRUS)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미국 고위인사 사이의 대화, 편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 국제 사회에서 자국이 후진국이었던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들의 생각은 좌담회, 칼럼, 기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지만, 소설, 영화 같은 문학작품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제 사회를 구현해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대리인을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는 국가의 의식의 흐름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외교문서와 같은 공적인 문서보다는 신문, 잡지, 소설 등에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읽어내고 이를 시대 상황과 연결지어 해석해보고자 한다.

1950년대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비단 한국의 지식인들만이 서구 문화와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 어린아이들 또한 서구 문화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생계유지였다는 점에서 달랐다. 전후 여성들은 유엔마담, 양공주로 불리우며 미군에게 몸을 팔기도 했고, 어린아이들은 구걸하는 영어 문구를 미군들에게 부르짖었고, 미군들의 구두를 닦아 돈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들이 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모습이 소설과 영화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들은 공식적인 문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실상과 다른 사실들을 포착해내야만 한다. 하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19) 최정운 교수는 “근대 이전의 전통 소설들은 대개가 신화적 이야기들이고 현실에 뿌리박기를 부정하는 장르로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사상과는 편차가 뚜렷하다. 우리가 원하는 사상이란 어떤 사회, 어떤 시대라는 시공간적인 특정성을 전제로 한다.”라고 근대 이후의 소설은 사상을 찾아내기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전후에 느끼는 현실 자각은 시, 소설, 기행문 등의 문학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1950년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문제와 관련이 깊은 제네바 회담과 반동회의를 살펴볼 예정이다. FRUS(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와 각종 신문(<경향신문>, <동아일보>)에 나타난 한국의 반응 등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한 자기 인식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1950년대 대표적인 여성잡지 『여원』,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전후 소설 등 최대한 많은 자료들의 담론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4.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존재의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존재의 고통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국제 사회에서도 느끼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존재함은 분명하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한국의 모습을 제네바 회담과 반동회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제네바 회담은 개최 여부부터 한국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채 강대국들에 의해 개최가 결정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 회담에 참가하기를 꺼렸지만, 미국의 회유로 제네바 회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더구나 1955년 제3세계 국가들이 반식민주의를 외치며 단결하였던 반동회의에서 한국은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식민주의의 경험을 그 어떤 국가보다 뼈저리게 느끼던 한국이 초청받지 못하고 제3세계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유령국가’와 같은 존재였다.

한국 역사에서 한국전쟁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역사적 비극으로 남았지만 세계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의 참혹함은 그리 기억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한국이라는 국가 존재는 식민지의 경험을 가진 작은 동양의 가

난한 국가로 인식될 뿐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포용할 국력이 약했기에 미군의 허드렛일을 도맡았던 하우스보이라는 독특한 사회현상이 생겨나고 해외로 입양된 전쟁고아들은 멸시와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에서 한국학 연구의 시초로 불리는 김일평 교수의 회고록과 각종 신문기사, 잡지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독특한 전후 문화들을 살펴보려 한다.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문화 전파의 파급력은 대단하였다. 한반도 내에서도 남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문화는 대표적으로 양공주와 하우스보이를 들 수 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전쟁고아와 여성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아프레겔은 일반적으로 전후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전후여성도 다양한 성향의 스펙트럼을 지닌다. 전쟁으로 인해 가장을 도맡아야 했던 억척스러운 여성, 걸으면 현모양처로 보이나 속으론 자유부인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던 여성, 굶주린 현실로 인해 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꿈꾸던 여성 등 전쟁은 한국여성이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을 살게 만들어준 기제였다.

제4장에서는 1950년대 한국 사회에 암묵적으로 행사된 서구 문화의 권력 구조를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표면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였지만 그것은 한국의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본질을 논해보고자 한다. 또한 미군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 전파는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다시피 하였고 특히 영화산업은 필름과 영화제작시설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가 되면서 미공보원의 지휘로 미국식 영화산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미국이 주도하였던 한국의 영화산업은 지금지도 할리우드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군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8군 쇼는 철저히 미군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가수과 노래는 한국 대중음악의 시초가 되었다.

전쟁은 국가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나 공식적인 문서와 언론에는 이러한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로지 수치적인 자

료를 통해 전쟁의 피해를 전달할 뿐이다. 특히 국가의 후진적 현실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존재하기 어려울 뿐더러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학작품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현실이 재구성되고 그 시대의 지식인들의 가치관이 잘 나타나 있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의 후진적 현실은 문학작품에 배경으로 잘 나타나며 소설 속 인물의 대화와 생각은 당대 지식인들의 사고를 보여준다. 따라서 논문의 핵심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로 판단하여 마지막 장에서는 전후 한국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군소리의 의미』, 최인훈의 『회색인』 소설을 분석하였다.

Ⅱ.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한국

1. 제네바 회담

제네바 회담²⁰⁾은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1945년 4월 26일 첫 번째 총회의를 시작으로 1954년 6월 15일 열여섯 번째 회의까지 약 50일 간 지속되었다. 제네바 회담의 소집 근거는 휴전협정의 제4조 60항이다. 이 조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의 군 지휘관들은 관련국 정부에게 한반도로부터 외국군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기타 관련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고위 정치회담을 휴전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뒤 3개월 내에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고 규정하였다. 휴전회담 초기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은 한국 내에서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은 철군 문제는 정전 성립 이후에 다루야 할 문제로 맞섰다.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조속한 정치회담의 개최를 내놓은 것이다. 제네바 회담이 중요성을 가지는 까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결실 없이 종결되어 지금까지도 남북한은 휴전체제 하의 분단 상태로 남게 되었다.²¹⁾

남한은 한국의 평화 통일 문제를 주로 다루길 원했지만 회담의 주요 인사들은 인도차이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고 한국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제네바 회담에서 인도차이나 문제는 더 주요하게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회담의 기간과 회의록에 기록된 양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 문제와 달리 인도차이나 문제는 73일 간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회의록에 기록된 한국의 통일 문제는 245쪽인

20) 1954년 4월 26일부터 열린 제네바회담은 한국을 포함한 유엔 한국참전국들 가운데 남아프리카연방공화국을 뺀 15개국과 소련·중국·북한 등 모두 19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두 달 동안에 걸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거 범위, 국제 감독, 외국군 철수, 유엔 권위 문제 등에 관한 토의를 벌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1) 홍용표,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8호 1권, 2006

반면, 인도차이나 문제는 1,056쪽으로 인도차이나 문제를 더 자세하게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남한과 북한의 의사는 각 진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제네바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던 베를린 회담에서 정작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은 회담 참여자가 아니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휴전 협정이 있는 후 그해 10월 26일 다시 판문점에서 외국군 철수 및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나 12월 12일 결렬되었다. 결국 다음해인 1954년 2월 18일 베를린에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 외상 회담에서 한반도 정치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²²⁾ 베를린 회담 며칠 전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덜레스(Dulles)는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자신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베를린 회담에서 나온 사항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극동 지역 문제에 한해 미국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²³⁾

이 시점에서 이승만에게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현재 극동 지역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관련하여, 본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²⁴⁾

덜레스(Dulles) Berlin, February 16, 1954-2 p.m.

22) 베를린 4개국 외상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문제를 다루고 추후의 회담을 통해 아시아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외무장관 조르주 비도(Georges Augustin Bidault)는 제네바 회담에서 인도차이나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는데 성공했다. 회담의 최종 합의사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타결을 위한 회담이 4월 26일 열리며, 인도차이나 평화는 5월에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23) 베를린 회담에서 제네바 회담이 결정되고, 이 사실이 한국에 통보되는 과정, 그리고 이승만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 국무성 외교문서집 『미국의 대외관계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16권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남찬순(1983)의 기사를 참조.

2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Document 1 795.00/2-1654: Telegram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Department of State

제네바 회담 개최여부가 결정되었던 베를린 회담 후 이미 남한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였다. 휴전 후 하루빨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실망하였던 것이다. 처음부터 소련의 참가자격으로 인해 유엔군 측과 공산측이 갈등을 겪었다. 공산측은 중립국들의 참가를 원했지만, 유엔군 측은 '참전국 쌍방'의 대표 간 회의이므로 중립국의 자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네바 회담 또한 강대국들 간의 권력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제네바 회의에 관해서 우리는 러시아가 중립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가 회의의 후원국 중 하나이며 초대장을 발송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인도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을 들었지만, 인도 대표단은 이미 제네바에 있다. 다른 점들도 똑같이 이해하기 어렵다.²⁵⁾

브릭스(Briggs) 주한미대사 Seoul, April 8, 1954-6 p.m.

더구나 제네바 회담의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도 남한과의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한국 측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주한미대사 브릭스(Briggs)의 전보와 제네바 회담에 참여하였던 외교관 최운상의 회고에 기록되어 있다.²⁶⁾

한국 정부의 발언은 베를린 협약에 대해 실망, 불만 및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략... 한국의 주요 비판 중 하나는 다수 표결

2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396.1-GE/4-854: Telegram

26) 공산측에서 북한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보인다. 소련은 "회의 참석자의 구성을 고려할 때 회의의 공식언어와 실무언어가 영어, 불어, 중국어와 러시아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네바에서 회의 준비에 관한 소련 정부의 견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논의한 바 있다."라며 북한 정권과의 협의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공식 및 실무언어로 한국어를 생략하였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396.1-GE/3-1854: Telegram Washington, March 18, 1954-2:26 p.m.

을 허용하고 참여국 중 한 국가에 의해 거부권을 배제 할 수 있는 원탁회의(round-table)의 성격이다. 27)

브릭스(Briggs) 주한 미대사 Seoul, February 20, 1954-3 p.m.

제네바 회의 개최 수일 전, 주한 미대사관 존 칼훈(John A. Calhoun) 1 등서기관으로부터 회의 진행방식에 관한 한국 측의 주장을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다. 회의에는 원칙적으로 대좌형식(cross-table)과 원탁식(round-table)이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를 물어 온 것이다. 외무부는 즉시 장관실에서 차관, 국장, 담당과장인 필자가 모여 논의를 벌인 끝에 대좌형식을 택하겠다고 통고했다. 원탁식 회의는 논쟁이 돌아가며 한없이 계속될 우려가 있지만 대좌식 회의는 가부간 결정이 쉬울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한국 측 뜻과는 상관없이 회의는 결국 원탁식으로 진행된다.28)

이러한 점으로 인해 남한은 제네바 회담 개최 며칠 전까지도 회담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고심하였다. 남한이 주요하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1) 제네바 회담은 판문점 예비 회의의 연속인가 2) 회담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3) 회담이 실패하게 된다면 미국은 평화적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4) 회담의 범위가 왜 인도차이나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인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29)

남한은 회담의 주요 의제로 인도차이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미 유엔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논점이 흐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영태

2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Document 1 795.00/2-1654: Telegram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Department of State

28) 원로 외교관 최운상의 1954년 '제네바 한반도 통일회의' 회고 수록 『신동아』, 2008년 2월 25일.

29) 제네바 회담 개최 며칠 전, 변영태 외무부 장관은 미국 측에 서신을 보냈으나 브릭스 주한미대사는 상사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며칠 지나서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396.1-GE/3-654: Telegram Seoul, March 6, 1954-2 p.m.

외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 전쟁의 지역화(localization)는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적을 한국의 질문에서 인도차이나로 바꾸고 협상력을 얻을 수는 없다. 한 회의에서 한국과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동양을 위한 패키지 거래(package deal)를 의미한다. 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 문제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서로 다른 이 두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비밀스러운 이해관계를 정당화하거나 악의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협약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정 할 수 있는가?³⁰⁾

첫 번째 총회에서는 회담 진행과 관련된 절차를 합의를 하였고³¹⁾ 두 번째 총회부터 한국과 북한의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본격 논의를 진행하였다. 변영태 장관의 연설이 회의문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그는 북한도 유엔이 지원하는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공산당 공격자들은 1951년 2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략... 공산주의 중국을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묘사했다. 그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한국에 대해 평화적 역할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만약 중국이 그들의 침략을 확대한다면 그들은 포위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성취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협력을 권고했다.³²⁾

3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396.1-GE/3-654: Telegram Seoul, March 6, 1954-2 p.m.

31) 회담진행의 합의된 절차는 1. 회의는 3시에 시작 5시에 휴식 7시에 끝낸다. 2. 공식 언어는 불어, 러시아,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5개 국어이며, 공식언어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채택된다. 3.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은 통제한다. 4. 기자회견을 할 때만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등으로 요약된다.

3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Second Plenary Session on Korea, Geneva, April 27, 3:05 p.m.: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to the Department of State 1

이에 대해 북한의 대표 남일은 해방 후 북한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남한은 미국이 통제하는 '반민주주의적' 요소들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고 말한다. 동시에 통일에 대한 방법으로 유엔군 철수 이후 한반도 총 선거를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회담 참여국은 처음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의견에 큰 관심이 없었다. 북한과 남한의 입장을 들어보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회담 참여국은 이미 그들만의 생각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 그렇기에 한국 문제를 논하는 회담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회담의 분위기는 다음의 회담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회의는 매우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모로토프(Molotov)³³⁾는 연설자를 소개하고 어느 시점에서든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는 엄격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터키와 미국 대표들을 자기편으로 불렀던 완 왕자³⁴⁾와 달리, 모로토프는 그로미코(Gromyko)³⁵⁾와 트로야노브스키(Trojanovksy)³⁶⁾에 의해 그의 뒤에 앉았고 처음에는 소련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세 명의 연사 모두 수동적으로 들었으며 다른 국가의 대표단의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³⁷⁾

16차례 회담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패로 예견된 회담이었기에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산당 대표단은 합의를 얻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거절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의 주요한 문제들은 명확하다. 첫째, 우리는 유엔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장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에서 유엔의 권위와 권한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유엔 자체를 공격의 도구로 규정했다. 만약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집단 안보라는 원칙과 유엔 자체의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진정으로

33) 소련 외무부 장관

34) 태국 외무부 장관

35) 소련 외무부 1차관

36) 소련 통역관

자유로운 선거를 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진정으로 자유선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절차를 주장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명백히, 그들은 북한에 대한 공산주의 통제를 유지할 의사를 보여 왔다. 그들은 1947년 이후 유엔이 한국을 통일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킨 똑같은 태도를 지속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견 불일치를 마주 하는 것이 헛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을 합의가 없는 곳에 있다고 믿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는다. 38)

사실 제네바 회담 전날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을 내세우며 회담 참여를 주저했었다.³⁹⁾ 그렇지만 미국의 설득으로 제네바 회담에 참가하는 하였으나 예상된 결과를 얻었고 회담 과정에서도 한국의 의견은 묵살되고 유엔과 소련 간의 의견대립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원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합의를 하려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적당한 수준에서 유엔의 권위를 내세워 제네바 회담을 종료시켰다. 무엇보다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대한 독단적인 결정을 두려워했고 이승만이 그의 주장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된다면 한반도 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자유진영이 회의장에서 해체되는 것보다 진영 내의 단결을 택했다. 만약 지금 제네바 회담을 종결시킨다면 세계 여론 앞에서의 입장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의 문제를 합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회담 성명서를 작성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통일 한국이 성립

3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Declaration by the Sixteen, Geneva, June 15, 1954

39) 1954년 2월 19일 주한대사가 미국정부에 보낸 전보에서 “잠정적인 회의 기간 지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통일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것에는 당황하였으나 미국인 친구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제네바 회의에 참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밝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있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795.00/2-1954: Telegram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February 19, 1954-5 p.m.

된다. 이는 서방 세계에서 원치 않은 결과였다. 이념에 상관없이 한국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에서 전략적 이익에 따른 분단국가로 남길 원했던 것이다. 북한은 외국군을 모두 철수한 후 한반도 총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의 제안은 후순위로 밀리고 그에 반대되는 제안이 회담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북한의 제안을 논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았고, 이것이 유엔이 감독하는 한국 전체의 선거를 위한 한국 측 제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⁴⁰⁾

이 회의는 한국이 편승한 인도차이나 회의이다. 판문점 예비 회의에서 휴전 협정과 유엔이 정한 한국에 대한 정치회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회의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에게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행해진 인도차이나에 관련된 회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4개의 후원국과 상임국가 1개국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앞에는 가난한 한국이 떨리는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것이다. 즉, 제네바 회의 일정은 자유세계가 한국에 대한 휴전 협상을 원했던 것에 대한 잔인한 사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과 인도차이나가 자유세계로 빠져나가는 것을 합법화함으로써 결국 동남아시아의 나머지 부분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주는 모든 위험과 징조가 나타난다. 나는 자유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이 모르는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 말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⁴¹⁾

브릭스(Briggs) 주한미대사 Seoul, April 6, 1954-1 p.m.

결국 회담이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측이 회담에서 생각하는 유엔의 권위(The authority of the UN)이 공산주의측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⁴²⁾ 1954년 11월 11일 한국 문제에 대한 제네바

4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MacArthur-Spaak Meeting, Geneva, April 30, 11:45 a.m.: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Counselor (MacArthur) Geneva, April 30, 1954.

4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396.1-GE/4-654: TelegramB

42) 스미스 장군이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 측의 첫 번째 연설을 하였는데 미국의 주요한 입장은 1. 유엔의 권위 2. 남한과의 좋은 관계 3. 한국에 참여하는 다른 UN

회의 보고서를 제9차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당국에 관한 선언문의 내용과 유엔의 감독 하에 남한의 자유로운 선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공산주의 대표단이 이러한 점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 합의라고 언급했다.

2. 초청받지 못한 반동회의

세계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들은 식민지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의 암묵적인 지배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구도는 유럽의 제국주의와는 다르게, 미국과 소련의 각 진영 내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유럽 열강들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의 또 다른 제국주의적 정치행위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생 독립국가들이 1955년 4월 18일 개최한 반동회의는 기존의 제국주의 대항방식과 다른 성격을 가졌는데, 바로 미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연대의 노선이었다. 이 회의는 2차 대회로 이어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최를 이뤄내어 ‘제3세계(Third World)’의 실천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동회의의 참가국들은 총 29개국으로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아랍연맹 국가들이 포함되어있다. 아시아 국가 중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까지 참여하였지만 한국이 초청받지 못한 이유로 장세진은 “강경한 반공정책”을 들고 있다.⁴³⁾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이 각각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노선을 걷고 있었기에 반동회의가 제시하는 제3의 노선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반동회의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심은 애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 4. 협상에 실패하는 것은 소련의 잘못으로 밝히고 있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Conference files, lot 60 D 627, CF 295 Conference files, lot 60 D 627, CF 295

43) 장세진, 『슬픈 아시아 한국 지식인들의 아시아 기행(1945~1966)』, (서울: 푸른역사, 2012), p.229

초부터 적었을 뿐더러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 반동회의 개최 당시 한국 언론을 살펴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새어나오는 불만을 막고자 막대한 경제 원조로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⁴⁴⁾ 즉, 자국이 속한 진영의 논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더불어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진영은 공동운명체로 결속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한다고 표명하였다. 아직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과거 식민지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원조가 필수불가결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한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이 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배타적 지역주의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반동회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 연대에 힘이 실리는 것을 우려해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 원조를 더 늘렸던 것이다. 그에 맞춰 한국은 미국만큼이나 반동회의에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을 택했다.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반동 회의는 강대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3세계의 노력만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성장을 엿볼 수 있으나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특히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만장일치제로 운영한 회의방식과 토의 항목에 대한 추상성에 의문을 가지며 이미 반동회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반동회의를 앞다투어 비판하였다.⁴⁵⁾ 다음의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동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44) 1955년 4월 15일자 『경향신문』에서 반동회의에 대한 한국언론의 부정적 시각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회의에 대한 서방 강대국 특히 미국의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은 미국 대외경제정책을 실행할 개회되는 반동회의에 앞서 십일일야내주말 국회로 전달될 대의원조법안에 관한 특별교서를 국회의원에게 발표하였는데 이는 동시에 반동회의 참가대표들에게 향해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이다. 삼십오억불에 달하는 내회계연도 대의원조는 삼분의 이가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로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45) “드디어 개막된 반동회의” 『경향신문』, 1955년 4월 20일.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아프리카 역시 하나가 아니다. 이것은 논리 이전의 사실로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지리학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통의 문화권도 아니요, 단일한 정치적 단위도 아니요, 하물며 통일된 경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리학적 개념 이상으로 생각하고 아시아의 공동 한 운명, 아프리카의 공동 한 운명 내지는 두 지역을 합해서의 공동 한 운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 공산 두 진영 냉전 대립을 완화하고 세계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시 대착오적인 아시아*아프리카관이 있는 것이다.⁴⁶⁾

장세진은 “한국은 ‘탈식민 아시아’와 ‘냉전 아시아’라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충돌할 때면,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주저 없이” 후자의 패러다임을 택했다고 말한다.⁴⁷⁾ 한국은 냉전 체제 내에서는 자유 진영의 논리를 따랐고, 자유 진영 내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반면 북한은 반동회의에 참가 서한을 보냈고 1955년 반동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으나 1961년 발족한 비동맹국회의에서는 정회원국이 된다.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한국은 제3세계의 시선에서도 이미 자신들과 탈식민적 동질성을 가진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닌, 반공노선이 뚜렷한 미국의 위성국가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⁴⁸⁾ 한국이 반동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46)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 『동아일보』, 1955년 4월 20일

47) 장세진, 2012, p.230

48) 김동춘은 한국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국가였다고 말한다. 한국 스스로 국가의 가장 일차적인 기능인 안보와 국민의 안전 및 생존의 보장을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파주: 돌베개, 2006). 이는 차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이 미국의 위성국가(Satellite state)로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차머스 존슨은 최근 연구에서도 미국의 위성국가 중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일본과 한국을 꼽고 있다.

3. 국제적으로 느끼는 국가 존재의 소외감

미국 내 한국학 연구의 시초로 꼽히는 김일평 교수⁴⁹⁾는 <교수신문>에 ‘미국 유학 60년’을 연재하였다. 이 연재물은 미국 내 한국학 연구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학계의 흐름에 대해 생생하게 회고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뼈아픈 역사이면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국제 사회가 보기엔 그저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일 뿐,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역설한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김일평 교수가 말하길, 현재 미국의 대학원에서 한국전쟁에 관련된 학위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고 학술서적도 굉장히 많으며, 학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전쟁 회고록도 많이 출판되었으나 불과 2000년대에만 해도 한국전쟁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데이비드 할버스탐(David Halberstam)⁵⁰⁾의 저서 『가장 추웠던 겨울(The Coldest Winter)』의 서문을 소개하고 있다.

6·25전쟁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2004년에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에 휴가를 갔다. 한국전쟁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었기 때문에 마이애미 시립 도서관에 가서 한국전쟁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월남전쟁에 관한 책은 88권이나 찾아 볼 수 있었는데 한국전쟁에 관한 책은 단 4권밖에 찾을 수가 없었다⁵¹⁾

49) 김일평 교수는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한 육군장교였으며, 휴전이 된 1953년 미국으로 건너가 켄터키주 애스베리(Asbury)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했다. 1963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선임연구원을 거쳐 1965년 이후 인디애나대학 교수를 맡았고,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코네티컷대학에 봉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50) 월남전에 관한 책 『제일 훌륭한 가장 총명한 사람들(The Best and Brightest)』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월남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저술한 저널리스트다. 그는 또 미국의 풀리처상을 받은 원로작가이기도 하다.

51) “‘박사논문’과 학자의 길을 만든 한국전쟁에 관한 나의 기억”, 『교수신문』, 2013년 3월 23일,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905>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군 중 미군이 단연 최고였지만 미국에서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라 불렀다.⁵²⁾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전쟁(Unknown war)’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⁵³⁾ 미국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수많은 제3세계 문제들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존재는 달랐다. 미국이라는 존재는 한국인에게 너무나 크고 부러운 존재였다. 그들 앞에 한국은 작은 나라, 작은 존재임을 스스로 각인시켰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한국 학생들은 한국을 알리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유학길에 올랐으나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로 ‘과연 미국에게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항상 마음속에 떠올랐다고 한다.

유학생 부모님들은 한복을 한 벌씩 여행 가방에 넣어주면서 미국의 교회 혹은 중고등학교와 사회단체가 초청해 한국전쟁과 한국역사에 관한 강연을 부탁할 때는 반드시 한복을 입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한국문화를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쳐 준 셈이다.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풍속도와 부채, 담뱃대 같은 선물도 우리 여행 가방에 넣어주기도 했다. 미국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니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열심히 소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⁵⁴⁾

(검색일: 2018년 3월 20일)

52)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된다. 첫째, 라디오와 신문으로밖에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미디어의 부재, 둘째, 세계 2차대전이나 베트남전쟁에 비하여 짧은 전쟁 기간, 셋째, 미국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라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극동지역의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으므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넷째, 세계2차대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되었으므로 여전히 세계2차대전에 대한 후유증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전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다섯째, 한국전쟁의 규모가 작았다. 미군은 한국전쟁에 30만명, 베트남 전쟁에 약 2배에 달하는 54만명이 참전하였다.

53)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커밍스의 한국전쟁』, (서울: 현실문화, 2017), p.105-106

54)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마침내 시작된 유학생할”, 『교수신문』, 2012년 9월 27일,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5938> (검색일: 2018년 3월 20일)

당시 한국의 존재는 미국뿐 아니라 서구 여러 국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거 참전했기에 외국에 나간 한국인들은 자국의 위신에 따라 자신들도 가난하고 약한 존재로 평가받기 일쑤였다. 설령 한국의 존재에 대해 알지라도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는 ‘식민지’, ‘미개함’, ‘가난’⁵⁵⁾, ‘전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신문기사나 잡지에 나오는 기행문에서 외국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존재에 대한 평가는 일관적이었다. 당시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등에서 해외를 다녀온 한국인들의 기행기 혹은 소감 등을 실은 기사들이 종종 실렸다. 주로 서양을 다녀온 한국인들의 체험이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서구를 바라본 한국인의 시선은 ‘동경’과 ‘선망’인 데 반해, 서구에서의 한국 존재는 무지하여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

학생들의 외국에 관한 지식은 빈약한 편이며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영에 가까워 “자동차가 있느냐” “대학이 있느냐”는 등의 유치한 질문에서 “남북한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것같은 놀라운 질문까지 받았습
니다.⁵⁶⁾

심지어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속해있는 나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았다.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영국에 간 한국인이 영국이 한국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본 일화를 소개한다. 영국의 대영박물관 2층의 중국 전시실을 가보면, 신라, 고려 때의 수저, 식기, 도자기 등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화유산들이 중국 전시실에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표지판에는 ‘재팬 앤드 코리아(Japan and Korea)’로 적혀있다는 것이다. “코리아라는 영자가 K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시대의 영자국호였던 C자로 시작되어 있었다”는 점은 여전히 서구에서는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⁷⁾

55) “한국에 대한 인상이라고요? 글썄 참 어젯밤 BBC방송 텔레비에 불쌍한 고아특집이 있어 보았지요.” 이것은 로이타 통신에 근무하는 여사무원의 얘기이다. “한국을 모르는 영국인” 『동아일보』, 1959년 4월 9일

56) “세계 고교생 토론대회 참가기” 『경향신문』, 1955년 4월 24일

Ⅲ. 독특한 전후 문화의 출현

1950년대 한국사회는 미국이 선진문화를 앞세워 한국문화를 주도하였고 오히려 국가의 주체인 한국이 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타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다. 특히 남한에서는 미군정을 시작으로 한국전쟁까지 겪으면서 미군이 주둔하게 되자 미국과 밀접한 문화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즉, 북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존재들이 생겼는데, 바로 ‘양공주’와 ‘하우스보이’이다. 이 명칭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불리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명칭이다. 따라서 유사한 다른 명칭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존재의 공통점은 그들 스스로가 규정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졌으며, 사회적 지배세력에 기생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전후사회의 독특한 존재였다.

1. 아프레걸

아프레걸(après-girl) 은 전후의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붙어인 아프레-게르(après-guerre)를 직역하면 전후(戰後)를 뜻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기존의 관습과 사상을 무시한 자유분방한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이 단어가 한국에서 ‘아프레걸’로 변형되어 전후파 여성을 지칭하였다. 하지만 이영미는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에서 외국어인 ‘아프레걸’과 ‘전후파 여성’은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고 말한다. 권보드래는 『1960년대를 묻다』에서 ‘전후파 여성’이란 단어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유럽의 핵심적 사상이었던 실존주의⁵⁷⁾와 허무주의 경향이 강하게

57) “한국을 모르는 영국인” 『동아일보』, 1959년 4월 9일

58)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홉스의 “인간이 인간에 대해 늑대(homo homini lupus)” 주장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인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사르트르는 인간이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이성애 회의감을 느끼고 ‘나’와 ‘타자’를 끊임없이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세상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도 당위적인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 인간은 자유와 주체성을 얻고 이것을 통해 실존 그

물어나오지만, ‘아프레겔’이란 단어는 미국의 화려한 생동감을 연상시킨다고 말한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 여성들이 마냥 암울하고 무기력하게 지낸 것만은 아니었다. 현실이 암울했던 것은 사실이나, 암울했던 현실을 조금이나마 잊고자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화려한 문화를 보고 듣고 느꼈다. 신문, 잡지, 영화 등의 대중매체가 주요한 통로였다. 더구나 1950년대는 신문과 잡지의 저널리즘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시기였다.⁵⁹⁾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여성잡지인 『여원』⁶⁰⁾은 여성을 담론적 주체로 설정하여 각계각층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국내적인 차원에서 한국 여성들의 생활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삶까지도 폭넓게 전달하여 대내외적으로 당시 한국 여성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여원에서 한국 여성들이 외국 여성을 선망의 시선으로 보는 뉘앙스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의 생활, 몸짓 등은 한국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동양과는 다른 서양에 대한 환상을 찬양한다. 다음 『여원』 1955년 10월호 특집기사 ‘오스트리아의 여성들’에 잘 나타나 있다.

오스트리아의 여성들은 구라파의 어느 나라의 여성과 차이가 없는
몸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은근하고 조용한 가운데 정렬적이며 어딘지

자체, 본질적인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 실존주의의 핵심 명제이다.

59) 제1공화국 시기는 신문의 발행부수를 능가하는 월간잡지들이 출현하여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던 기간이라고 평가된다. 매스 미디어의 하나로서 잡지의 위상이 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중반에는 『현대문학』 『문학예술』 『자유문학』 등 문학 종합지 3종이 동시에 발간되었다.

이봉범, “현대문학 :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여문학회』 제29호 (2010) 참조

60) 여원은 1955년 10월 182면으로 창간되어 다음 달엔 200면, 4개월 만에 286면 분량으로 증량된다. 판매가도 50프로나 인상하였지만 출간 직후 매진된다. 여원은 형식적으로 일반, 수기, 의식주 특집으로 나뉘어 있었고, 내용면에서는 가장 내밀한 사적영역인 성과 육체에서부터 해외 토픽, 문화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미용이나 패션 등의 여성의 개인적 관심사보다는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 등을 다루는 기사가 많아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르게 고상한 기품을 지니고 있어 선녀를 만나는 것같은 인상을 주었다. …중략…오스트리아의 여성들은 어디까지나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냉정한 자기비판으로 합리성 있는 이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강인한 투지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실천하고 있었다. 그 특이한 예로서는 독신 생활을 하는 여성의 수가 대단히 많은 것이다. 하기가 제일 ,이차 대전으로 미망인이 된 여성들도 많겠지만 그 대부분이 ‘미쓰’인 것이다. …중략…구라파에서 말하는 동양적이란 용어는 비단 우리나라 여성만이 아니고 동양여성들의 기계적이고 전통적이고 의존적인 서역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⁶¹⁾

오스트리아 여성들의 걸모습을 칭찬하면서 독신여성이 많은 사회를 독특하게 바라본다. 전쟁미망인도 상당수겠지만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개성 있다고 평가한다. 오스트리아의 전쟁미망인, 독신 여성들과 한국에서의 그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다른 위치에 존재하였다. 한국전쟁 후 50만 명에 육박했던 전쟁미망인은 가족을 이끌어나가는 생계전담자였다. 이들은 행상, 노점상, 식모, 성매매 등을 통해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⁶²⁾ 따라서 전쟁미망인들의 사회진출은 꿈도 꿀 수 없을뿐더러, 사회적으로 현모양처 담론은 거세졌다. 여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이를 벗어나면 비판을 받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다음의 일화에서도 전통사회적 역할을 강요받으며 살 수 밖에 없었던 전근대적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서양 여성이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내가 어느 날 연회에 초대를 받고 갔을 때의 일인데 내가 수차 댄스를 하자는 권유를 받고 거절을 한즉(실인즉 나는 댄스를 할 줄 모르지만) 그 곳에서 알은 여성이 나에게 ‘동양적인 위선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추고 싶으면서도 하지 않는다’고 하며 내가 쓴 시도 과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과연 제가 쓴 시 중에서 진실하게 마음에서 우려난 시가 얼마나 되는가. 그저 마음에도 없는 애국시나 쓰고 진실로 마음에 울어나

61) 『여원』 1955년 10월호 “오스트리아의 여성들”

62) 이임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 중심으로”, 『역사연구』 8호, 2000.

서 쓴 시는 찢거나 아니면 쓰지도 않았으리라고 말하기에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있다고 한즉 찢어버린 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진정으로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짧은 대화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자기 주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⁶³⁾

전후 한국여성들의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소설 『자유부인』⁶⁴⁾의 흥행으로 증명되지만, 자유부인 역시 결국에는 남편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결말로 끝맺어, 완전한 일탈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전후 한국여성들이 전근대적인 면모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관대로 살고 싶어 했던 욕망은 잡지, 소설, 영화 곳곳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번번히 한국사회의 유교적 윤리가치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신문, 잡지, 영화에서 보여지는 서구 여성들의 자유로운 삶은 전후 한국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한국사회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사회의 굴레에 묶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유조차도 영위할 수 없던 슬픈 존재들도 나타났다. 바로 전후 여성들의 가장 비참한 면을 보여주는 ‘양공주’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미군정 때와 한국전쟁 중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주로 양공주 혹은 양갈보라 불렀는데, 그 밖에 양색시, 유엔마담, 히빠리, 주스 걸(필리핀에서 쓰던 말)이라고도 했다. 양공주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존재였지만, 사회적으로 유령 취급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주둔한 미군을 위한 기지촌을 한국 정부가 손댈 수 없었다.⁶⁵⁾ 이나영은 양공주가 두 국가의 헤게모니적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생성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족공동체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개념이라 설명하였다. 양공주는 “국가 안보의 담

63) 『여원』 1955년 10월호 “동양적이란 멸시의 용어” p.87

64)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에 걸쳐 서울신문에 연재된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은 한국 출판사상 최초로 10만부 이상 팔린 소설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 전쟁 직후의 퇴폐풍조와 전쟁미망인의 직업전선 진출 등 당시의 절실한 사회 단면을 파헤침으로써 지성의 힘을 각성시킬 의도로 쓴 소설이다.

65) 이나영은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에서 기지촌은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필요악으로서의 기지촌’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보물이자, 경제정상의 발판이었지만, 전쟁과 가난, 절망적 식민지 상태의 기표일 뿐만 아니라, 따라잡아야 할 미래의 현현이요, 대한민국이 여전히 식민지 상태임을 인지시켜 주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과거이자 현실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김원회는 이들의 존재에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고 밝히며 “우선 여성들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극도의 생활난과 남성부재라는 현실, 그리고 가진 것이라곤 ‘몸’밖에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 하나요, 수십만에 달하는 미군을 비롯한 군인이라는 특수하고 격리된 ‘남성’ 집단을 유지하게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그 둘째였다.”라고 말한다.⁶⁶⁾

위로는 고급주택에 정식부인으로 들어앉은 ‘양부인’으로부터 밑으로는 괴짜같은 “판자집” 결방살이를 하는 “양공주”에 이르기까지 그 수효는 등록이라도 시켜보기 전엔 알아낼 도리가 없겠지만 한참 번창하였을 때는 능히 이만명을 넘었다고도 전하여지고 있다.

외인군대를 전문으로 상대하는 여자를 한마디로 “양갈보”라고 부르지만 그중에는 깨끗한 애정으로 맺어져 혼혈의 아들딸을 기르며 부부생활을 하는 “정숙파”도 있는가하면 흔히 삼사인의 특정된 상태자와 교묘하게 시간표를 짜서 “교대근무”를 하는 약빠른 “팔방미안파”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이면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상대하는 “마구잡이파”도 있다. 어쨌든 이것도 해방의 “특산물”임에는 틀림이 없은즉 “양공주”라면 모두가 사회에서 버림받은 타락한 비극의 여성군이지만 허영과 금욕에 눈이 어두워 뛰어난 극소수의 일부 탈선여자이외의 대부분은 불가피한 생활사정으로 몸을 팔게 된 기막힌 “요구호대상자”들이다.⁶⁷⁾

양공주 숫자는 공식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규모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⁶⁸⁾ 한국사회의 하나의 분리된 집단으로써 존재하였고

66) 김원회 칼럼니스트 <http://soxak.com/posts/2600#direct> (검색일: 2018년 3월 23일)

67) “해방십년의 특산물 양공주” 『동아일보』, 1955년 8월 18일

68) “갑오기자수첩에서 (3) 실직양공주” 『동아일보』, 1954년 12월 22일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수 일만이라고도 하고 삼 만명이 넘는다고도 하나 모두가 주먹구구로 추측한 숫자에 불과하고 이 땅의 양공주 실제수효는 아무데도 정확하게

이 집단에 대한 시각은 물론 좋지 않았다. 1959년 10월 『현대문학』에 발표되어 각종 문학상을 받으며 각광받은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에서 양공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인공 철호의 동생 명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묘사한다.

철호가 탄 전차가 을지로 입구 십사거리에 머물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붙들고 창을 향해 서 있던 철호는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다. 전차 바로 옆에 미군 지프차가 한 대 와 섰다. 순간 철호는 확 낮이 달아올랐다. 핸들을 쥔 미군 바로 옆자리에 색안경을 쓴 한국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명숙이었던 것이다. 바로 철호의 턱밑에서였다. 역시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지프차 속에서 미군이 한 손을 핸들에 걸치고 또 한팔로 명숙의 허리를 낚시시 끌어안는 것이었다. 그 미군 지프차 저편에 선 택시 조수가 명숙이와 미군을 쳐다 보며 피시시 웃었다. 전차 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철호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청년 둘이 쑥덕거렸다.

“그래도 멋은 부렸네.”

“뭣? 그래 색안경을 썼으니 말이지?”

“장사치곤 고급이지, 밀천 없이.”

“저것도 시집을 갈까?”

이범선 『오발탄』

철호는 명숙이 미군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이후로 명숙과 단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 후 철호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자 명숙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뭉치를 건넨다. 그 때 철호의 눈에 명숙의 나일론 양말 구멍이 보이는데 그 구멍 뚫린 양말을 보고 철호는 명숙에 대한 “오빠로서의 애정”을 느낀다. 철호도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가장이었고 양공주인 명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양공주는 전후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외화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 싶다. 그들은 마지막 대목이나마 톡톡히 한몫 보려고 일제히 떠나가는 미군병사들에게 달려들어 소위 이별의 “기념품”을 졸라대어 보석반지 시계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을 얻어내기 시작 이것이 시중에 퍼져서 한때 귀금속 시세가 떨어진 일도 있었다.“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규정되었던 소외된 사회 계층이었다.

2. 하우스보이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전쟁고아⁶⁹⁾들은 살기 위해 미군 부대 주변을 떠돌면서 구걸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 중에서도 미군 부대에서 막사 청소를 하고, 미군의 군화를 닦아주고 각종 심부름을 해주는 ‘하우스보이’로 선발이 되면 대단한 행운으로 여겨졌다. 이는 북한에는 없는 남한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이다. 한국전쟁 당시 유년시절을 보낸 한국남성들은 상당수가 하우스보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 학계에서는 하우스보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회고록, 경험담, 문학작품에만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송병수의 소설 『쏘리 킴』⁷⁰⁾에서는 미군 부대 주변에 사는 전쟁고아 소년을 통해 하우스보이와 양공주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쏘리 킴은 하우스보이 중에서도 말단 하우스보이에 속한다. 그래서 쏘리 킴이 늘 찾아가는 곳은 “졸때기 양키들이 있는 곳”이다. 작품 초반에 쏘리 킴의 “그래도 양키라면 한국 사람들보다 모두 좋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전쟁으로 인한 골육상잔이 얼마나 한국인에게 아픔으로 느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쟁으로 인한 가난은 도덕적 타락을 이끌었고 황폐한 사회 속에서도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의식이 송병수 소설 속에서는 나타나있다. 하우스보이가 표면적으로는 미군에 기생하는 존재이지만, 쏘리 킴은 미군의 물질만을 생각하여 그들 곁에 붙어있진 않았다. 항상 따링 누나와 행복한 삶을 꿈꾸며 따링 누나에게 데려갈 미군을 돈의

69) 전쟁으로 발생한 고아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1953년 4월말 치안국에서 추산한 수치는 17만여 명이었으나, 같은해 12월 경향신문은 약6만여 명 정도로 보도했다.

70) 작가 송병수는 어느 양공주가 MP(헌병)에게 체포되어 달러를 몰수당하고 강제 삭발까지 당한 후 후방 지구로 호송 추방되는 장면을 목격한데서 온 충격이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국단편문학대계』, (서울: 삼성출판사, 1969)

양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따링 누나의 선호를 고려하였다.⁷¹⁾ 마지막에 희망의 씨앗이었던 따링 누나가 MP(헌병)에게 잡혀가자 쏘리 김은 미군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이젠 이곳 양키부대도 싫다. 아니, 무섭다. 생각해보면 양키들도 무섭다. 불독 같은 놈은 왕초보다 더 무섭고, 엠피는 교통순경보다 더 밉다. 빨리 이곳을 떠나 우선 서울에 가서 따링 누나를 찾아야겠다. 그 마음 착한 따링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야 까짓 달려 뭉치 따위, 그리고 야광시계도 나 일론잠바도 짬뽕모자도 그따윈 영 없어도 좋다. 그저 따링 누나를 만나 왈칵 끌어안고 실컷, 실컷 울어나 보고, 다음에 아무 데고 가서 오래 자리 잡고 ‘저 산 너머 해님’을 부르며 마음놓고 살아봤으면.....⁷²⁾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면모를 보여준다. 쏘리 김과 따링 누나가 ‘저 산 너머 해님’을 부르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전후 현실을 더 비극적으로 보여주게끔 만든다. 1950년대 수많은 전쟁고아들은 미군부대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꿀꿀이죽을 먹으면서도 생존에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고아들 중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한국을 떠나는 미군을 따라 미국에 입양을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으로 입양을 간다고 해서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될 뿐이었지, 근본적으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못하였다. 미국 워싱턴주 신호범 상원 부의장은 전쟁고아가 되어 미군 부대 근처에서 하우스보이로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미국으로 입양가게 된 사연을 2010년 1월 8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상세히 말하기도 하였다.

6 25사변 때 제가 노량진 다리에서 미군에게 구걸하다가 어느 미군이 트럭에 올려서 임진강 건너서 장단 미군부대 하우스 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71) 언젠가 쏘리 김이 흑인 미군을 데려간 일이 있었는데 그 때 따링 누나가 다시는 흑인 미군을 데려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 이후 쏘리 김은 흑인 미군이 달려를 많이 준다고 하여도 따링 누나에게 데려가지 않았다.

72) 송병수, “쏘리 김”, 최원식·임규찬·진정석·백지연 엮음, 『20세기 한국소설 15』, (서울: 창비, 2005), p.250

하우스 보이로 있을 때에 친구도 없고 외롭고 가족이 없으니까 많이 울었어요. 노랑진 다리에서 굶고 춥고 그럴 적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부대 가서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잠 자리도 좋은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난한가 생각할 적에 외로워서 제가 자주 울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나니까 외롭고 달도 밝고 그래서 언덕에 나가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도 안보기 때문에 울고 있었거든요. 한 미군이 나에게 왜 우느냐고 물어요. 창피해서 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안 가십니다. 또 왜 우느냐고 해요. 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꼭 안아주시면서 하는 말이 미국의 내 애들이 셋 있는데 너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6살 때 나는 입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입양하면 미국 갈 수 있다는 조건에 그분에게 입양됐습니다. 그때부터 폴 신이 된 겁니다.⁷³⁾

한국전쟁을 겪은 60~70대 한국인들은 하우스보이였던 시절을 생생히 기억한다. 극도의 결핍과 외로움 가운데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되물으며 지금까지 생존해왔기 때문이다.

미군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다지 진보적이거나 자주적인 것이 못 된다. 나는 내 유년의 배고픔과 공포의 추억 속에서만 미군을 생각할 수 있다. 나이 오십이 훨씬 넘은 지금도 나는 길에서 주한미군을 마주치면 주눅이 들어서 피해간다.

아아, 미군.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미군 지프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받아먹으며 나는 자랐다. 나보다 좀 더 나이 많은 소년들은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 미군의 속옷을 빨고 쓰레기를 치웠는데, 그 하우스보이 자리는 미군과 특별한 은총의 관계에 있는 소년에게만 돌아가는 행운이었다. 그때의 초콜릿 맛은 천지가 개벽하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놀라움이었다. 미군에게 얻은 초콜릿을 들고 가족들이 사진관에 가서 기념촬영을 하는 집도 있었다. ⁷⁴⁾

73) “세계의 한국인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 자유아시아 방송 2010.1.8

74) “기브미 초콜릿의 기억, 김훈의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씨네 21』, 2002년 07월 24일.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1506 (검색일: 2018년 4월 1일)

처음 하우스보이로 고용된 한국 소년들은 더 이상 굶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다. 국가는 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미군에게 붙어 허드렛일을 하고 얻어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군부대에서 그들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온갖 누명을 써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땐, 조용히 뒷골목에 가서 울며 나는 왜 사는지, 왜 나의 조국은 가난한 나라여야만 했는지를 되새겨야만 했다. 하우스보이 중 가장 성공하는 경우는 미국으로 입양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미국에 입양을 가서도 미국 사회에서, 입양된 가정 속에서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는 한국의 존재처럼 한국사회 내에서 한국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제3세계의 축에 들지 못하는 부유하는 존재였고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우스보이와 양공주 또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존재로써 각인되었다.

IV. 서구 문화권력 행사의 장

한 사회의 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단위는 국내적 측면에만 국한된 경우가 빈번하고, 사회과학에서는 문화를 정치와 경제의 종속변수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짙다.⁷⁵⁾ 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정치, 경제적 측면을 열외로 놓을 순 없으나, 문화는 정치, 경제와는 또다른 권력구조를 만들어내기에 단순히 정치, 경제의 종속변수로만은 볼 수 없다. 특히 1950년대 한국은 서구 문화의 유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서구 문화권력이 암묵적으로 행사된 장⁷⁶⁾이었다.

국가 간의 문화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 우월한 정치세력이 매개가 되어 상당히 지속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거나 피전파 사회의 지배층을 매개로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⁷⁷⁾ 1950년대 한국사회로의 서구 문화 유입의 양상을 보면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전파’의 양상으로 보기엔 어딘가 기형적이다. 전후 한국사회는 근대성을 지닌 서구문화를 곧이곧대로 받아

75) 최정운은 “문화는 정책 결정자들의 정형화된 사고와 행위를 지칭하므로 정치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시장에서의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권력의 작동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경제에서도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논의들은 문화를 정치나 경제의 종속변수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이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최정운, “국제정치에 있어서 문화의 의미” 『국제문제연구』 제 22권 1호, 1998, p.42-43

76) 부르디외(Pierre Bourdieu) 계급 이론의 출발점은 사회적 공간이다. 그는 사회적 맥락을 상이한 자본들의 소유를 통해 행위자가 차지하는 객관적 위치들의 네트워크로, 분화된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정의한다. 이 사회적 공간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세계가 바로 ‘장(field)’이다. 위치는 장 내에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자본의 총량과 그 구성비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장은 객관적인 위치들이 구조화되어있는 동시에 장 내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자본의 불균등한 분포 상태인 것이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장의 논리가 존재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 내에서 국가의 계급적 위치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으로 결정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국제사회 내의 위계질서가 정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제, 정치, 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1950년대 한국사회 내에서 서구 문화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정치구조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상위문화로 선명하게끔 만드는 보이지 않는 폭력적인 권력구조를 만들어냈다.

77)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이조, 2013), p.72

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1950년대 한국영화나 소설들이 한국전쟁 후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거나 서양인의 일상생활을 비슷하게 향유하는 상류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경향을 띠기도 한다. 한국의 비참한 현실과 서구 문화의 화려함의 괴리는 현실 자각을 이끌어내면서 열등감, 좌절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결국 가난한 한국인의 처지에서 서구 문화의 가치가 우월하고 한국이 미개하다는 담론까지도 스스로 생성해기도 한다.⁷⁸⁾

1. 외국의 원조 : ‘도움’과 ‘조종’의 양면성

1) 한국의 절대적, 상대적 빈곤 현상

1950년대 전후 한국사회는 ‘부족’과 ‘결핍’의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한국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먹을 것이 너무나 없었기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구해다 먹었다. 땅에서 나는 농작물과 고기들로 식량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풍족한 미군의 식탁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1950년대 당시 서이촌동부근 주민들은 미군부대에서 담배꽂초까지 들어있는 ‘꿀꿀이죽’을 깡통으로 사서 먹었는데 이것을 이곳 주민들은 ‘UN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⁷⁹⁾ 음식마저도 미국의 쓰레기를 먹어야 하는 당대 현실은 한국인의 인권이 위태롭다는 인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음의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한국전쟁이 종결된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빈곤한 생활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삶이 잘 나타나있다.

열한살배기 인석이는 꿀꿀이죽 한탕끼를 저녁이라고 얻어먹고는 찻먹이 동생인 순자를 들쳐업고 움막을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다. 얼굴이며 걸치고 있는 누더기엔 온통 석탄가루로 범벅이 되었고 눈들

78) 니체는 "인간을 가장 절망적인 비참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연 앞에서는 아니라 바로 다른 인간들 앞에서 느끼는 무력함이다"라고 주장한다. 김용찬,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서울: 책세상, 2007)

79) "빈곤과 기아에 우는 주민들 이촌동이란 어떤 곳." 『경향신문』, 1957년 7월 27일.

만이 빠끔히 초롱거렸다. 미도파 앞에 다다르자 인식이는 언제나 하는 것처럼 순자를 들쳐업은 채 차디찬 씨멘트 바닥에 피그르르 엎디고는 곧 축 늘어지는 것이었다 배고파 칭얼대던 순자는 잠이 들었는지 잔등에 와닿는 입김이 따스했다. 한시간 두시간 그리고 또 몇시 간이 흘렀는지 그렇게 숫하던 발걸음도 뜨옴해지고 이따금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어린 순자는 깜짝깜짝 진저리를 쳤다.⁸⁰⁾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1953년 이후에서야 비로소 작성되었다. 한국은 1955년 8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세계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동시에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에 가입하였다. 당시 IMF와 IBRD에 가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I)는 67달러에 불과하여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 가봉보다도 더 가난한 국가였다.⁸¹⁾

더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농업은 주요한 산업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농지가 파괴되자 국민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1953년이 되자 정부는 ‘절량농가’가 전체 농가(220만호)의 절반인 110만호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였다. 당장의 기근을 면하기 위해 많은 농가들이 수확 전에 입도선매(立稻先賣)로 벼를 헐값에 거래하였다. 입도선매는 벼가 여물기 전에 먼저 팔기에 제값을 받을 수 없었고 당장의 배고픔을 면할 뿐, 다음해는 더욱 형편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처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농가의 몰락을 막기 위해 입도선매를 단속을 하였으나,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던 소작농은 입도선매를 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게 된다. 이대근은 “'보릿고개'라는 자학적인 표현이 이 무렵 등장했다”고 말한다.⁸²⁾

80) “나도 사람이다 제10회 인권옹호주간(2)” 『경향신문』, 1958년 12월 9일

81) “한국 경제, 기적을 만들다” 『KDI 경제정보센터』, 2015년 8월호

82) 이대근. “해방후 1950년대의 경제: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2, p. 220-221

설상가상으로 1953년 2월 정부가 발표한 화폐개혁은 물가 폭등을 유발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극심해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국에 일제히 '원'단위 화폐 유통이 중지되고 '환'단위의 통화를 유통시켰다. 100원을 1환으로 교환 비율을 정하고 구권을 유통 금지시키고 금융기관에 강제로 예치하도록 하였다. 신권의 가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었던 국민들은 오히려 물건 사재기를 시작하고, 물가 폭등을 유발하였다.

한국전쟁 후 파괴된 도시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국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국에 원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1953년의 미국의 원조금액(3억 달러)는 한국의 GDP(13억 달러)의 1/4을 차지할 정도였다. 특히 당장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활필수품(식료품, 의복, 의료품)과 소비재의 원료(설탕, 밀가루, 면방직) 등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당장의 기근은 면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국내 공업 부분의 불균형과 생산재 산업의 부진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농촌에서는 1956년에 미국의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곡물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당시에는 수입량결정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실제 곡물 수요량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해야만 했다. 많은 농산물을 통해 곡물의 가격이 하락했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농촌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가난해진 농민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농 현상'이 발생하고 한국은 더욱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갖게 되었다.

2)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 본질

도시에서는 정부가 미국의 원조로 받은 농산물을 팔아 '대충 자금'을 마련하였고 기업들이 생산 설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다. 기업들은 미국의 무상 지원 등을 통해 들어온 저렴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을 이르는 삼백산업 위주로 발전을 하였다. 삼백산업은 원재료가 제품의 원가 비중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1950년대 초반에는 많은

양의 원료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였기에 제일제당, 금성제당, 대한제분 등 재벌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삼백산업은 원조 물자의 지원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 환경이 바뀔 수 있는 대외 의존적인 산업이기에 건전한 국가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삼백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다른 제조 및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밀가루, 설탕, 면직물의 분배는 기업들의 생산 시설 규모 순으로 분배하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기업들은 노다지인 삼백산업을 두고 다른 산업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료를 더 많이 배정받을 목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50% 밑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분, 제당, 면방직 시설 확장에만 치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는 미국의 경제 불황⁸³⁾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이 대한 원조 정책을 무상 원조가 아닌 유상 원조로 바꾸게 되면서 삼백산업이 원가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이를 주축으로 하였던 한국 경제 또한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실질적인 전후 복구 및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는 단순히 원조금액의 절대값보다는 국가의 기반시설이 되는 교통, 농업, 공업 등이 포함된 계획원조의 비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54년부터 1959년까지의 국제개발처의 원조수입액을 보게 되면⁸⁴⁾, 기본적으로 비계획 원조가 계획 원조 대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비계획원조를 통한 공급은 해당국의 수요와 맞아 떨어지지 않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존의 목적에 따라 구호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재고로 쌓이거나 정부의 '대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가 되는 경우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83) 1950년대 후반 패전국이었던 독일,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의 전후 경제복구가 어느정도 진전됨에 따라 미국 경제력의 압도적 지배력은 약화되고 1958년 이후 국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84) 1953년의 원조수입액은 통계상 집계되지 않고 있다.

수입부문별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계획원조	비계획원조	계획원조	비계획원조	계획원조	비계획원조	계획원조	비계획원조	계획원조	비계획원조	계획원조	비계획원조
총수	10,165	72,272	97,460	108,355	85,390	185,659	92,759	230,538	63,890	201,739	43,611	164,686
농업 및 자연자원	198	-	3,404	-	1,784	-	5,947	-	4,549	-	6,876	-
광공업	6,367	-	21,168	-	25,960	-	28,935	-	22,345	-	12,354	-
교통	1,305	-	62,024	-	42,097	-	42,129	-	20,229	-	10,150	-
보건위생	255	-	2,106	-	2,099	-	2,741	-	3,786	-	3,079	-
교육	-	-	33	-	982	-	3,491	-	3,172	-	3,692	-
공공행정	-	-	-	-	124	-	396	-	1,437	-	1,170	-
사회 후생 및 주택	1,570	-	7,330	-	9,003	-	6,266	-	4,927	-	2,492	-
일반 및 기타	470	-	1,395	-	3,341	-	2,824	-	3,445	-	3,798	-
농업물자	-	23,450	-	28,443	-	37,747	-	73,758	-	41,736	-	32,426
연료	-	11,712	-	10,471	-	23,473	-	24,000	-	35,395	-	20,625
원료 및 목제품	-	30,518	-	54,937	-	107,171	-	105,638	-	97,960	-	88,895
판매용투자재	-	6,637	-	14,504	-	17,268	-	27,142	-	26,648	-	22,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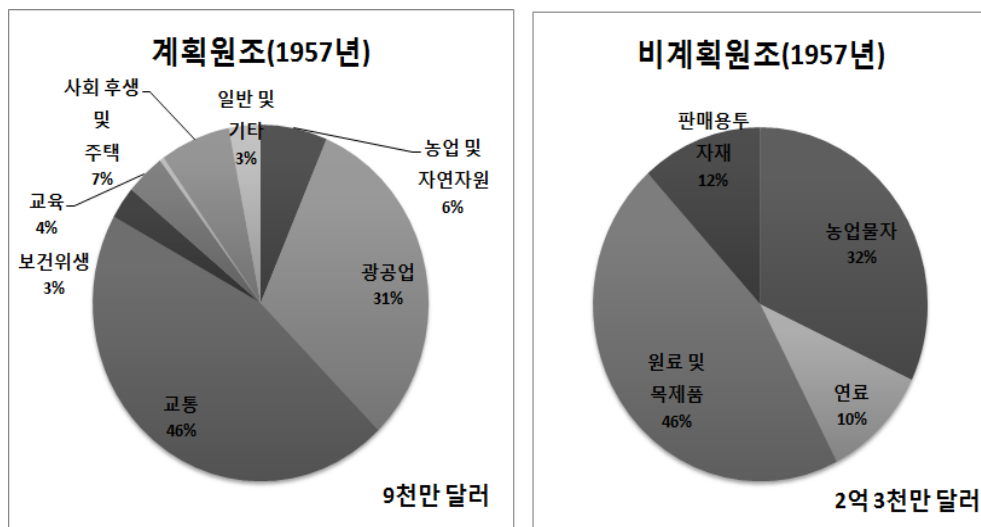
<표 1> 1954~1959년 국제개발처 원조수입액 (단위: 1,000달러)

(출처: 주한미군 경제협조처, 국가통계포털-국제개발처 원조수입액 데이터재구성)

또한 국민 생활의 안정에는 의식주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농산물이 수급이 원활하고 가격안정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조 물자 중 가장 변동성이 많은 물자 중 하나가 바로 농업물자였다. 1957년 농업물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이 많이 지원이 되었지만 1958년에는 농업지원 물자가 40%가 줄어드는 등 이에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의 변동이 극심했고 비계획 원조가 국가 경제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비계획 원조가 당장의 전후 한국사회의 경제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 경제의 건전성 및 자립성 측면을 많이 훼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의 1957년 원조수입액⁸⁵⁾ 중 계획원조와 비계획원조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한 원조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1957년 국제개발처 원조수입액

(출처: 주한미군 경제협조처, 국가통계포털-국제개발처 원조수입액을 토대로 데이터 재구성)

1957년 국가개발처의 원조 수입액 3억 2천만 달러 중 비계획 원조가 2억 3천만 달러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광공업, 공공행정 등이 포함된 계획원조에 대한 지원이 적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향후 원조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취약할 수

85) 구체적인 통계가 집계된 1954년부터 1959년 중 1957년을 선택한 이유는 1957년이 가장 미국의 원조가 활발했던 해였고 그 다음해부터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해마다 계획원조보다 비계획원조가 훨씬 많은 구조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1957년 한해의 계획원조와 비계획원조의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비계획원조 부분에서도 원료 및 목제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으며 이는 삼백산업의 발전과 연관성이 높다.

또한 한국정부는 원조액에 상응하는 통화를 비축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대충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동의하에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고 많은 부분은 국방비로 지출되어 역으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오는데 사용되었다. 미군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사교류를 추진한 기관이었다. 전쟁을 계기로 1952년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된 국군 장교단의 도미 군사교육 - 미국식 군대예절과 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미국에서 단순히 군사 전문기술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미국 물질문명과 정신문화를 직접 체험하였다. 미국 국제협조처, 주한 미 경제조정관실로 연결되는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 기관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주로 미국으로 파견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하였다. 미국이 제도와 가치를 한국사회에 전파하여 향후 국가권력의 두 중추인 군사와 행정 부분에서 지도자가 될 이들에게 영향력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교육과 국가의 체제 안정과 관련된 공공행정에 대한 부분은 원조물자 중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1955년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수준으로 지원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1956년부터 일부 지원이 시작되고 1957년부터는 매년 3백만 달러 수준의 지원을 하였다. 교육에 대한 내용은 문맹, 실업에 대한 내용 보다 미국 문화의 전파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하나는 "미국화와 욕망하는 사회"에서 미공보원을 통한 미국의 문화 전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대상자는 지식인, 군인, 농민에게까지 확대가 되었고 특히 농민을 대상으로 한 공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였다.

2. 서구 문화의 ‘이식(移植)’과 ‘추종(追從)’

1) 1950년대 한국의 영화산업

미국 문화는 해방 이전부터 한국에 소개되었지만 체계적으로 도입이 된 시기는 미군정 때이다.⁸⁶⁾ 그 중에서도 미국식 삶과 이상을 가장 생생하게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영화였다. 해방 후 한국영화의 주 생산 주체는 미군정청 영화과와 미공보원⁸⁷⁾이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도 미공보원(USIS)은 한국 영화의 수준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미국이 원하는 선전물을 제작하는 데 유리한 구조를 구축하였다.

연도	국산	해외수입	계	국산비율
1953	6	119	125	5%
1954	18	114	132	14%
1955	15	120	135	11%
1956	30	143	173	17%
1957	37	134	171	22%
1958	74	222	296	25%
1959	111	203	314	35%
총 계	291	1,055	1,346	22%

<표 3> 1950년대 연도별 국내 영화 상영 편수

(출처: 『한국영화자료편람(초창기~1976)』, 서울: 영화진흥공사, 1977)

한국전쟁 발발 후 5년간은 영화 제작 시설의 파괴뿐만 아니라 보관 필름까지도 전쟁 중에 분실되어 국내 영화 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 시기였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는 매년 5~6편의 영화가 제작 밖

86) 서대정, “미국 대중문화가 한국인의 가치관에 끼친 영향 연구.” 『현대영화연구』 4호, 2007, p.95

87) 광복 후 1945~1946년에는 미군정 영화과가, 1947년부터는 주한 미군사령부 공보원(Office of Civil Information, OCI)이 문화영화 제작을 담당하였다. 미군사령부 공보원(OCI)은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미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으로 승계되었다.

에 되지 않았으며, [표3]에 1955년까지도 국내 제작 영화 편수가 20개가 넘지를 않는다. 해방 직후 1948, 1949년에 20편이 넘게 제작된 것을 비교하면 영화 제작이 급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6.25 당시에 더불어 전쟁으로 말미암아 군부가 영화제작에 깊이 간여할 수 있었고 특히 한국에 미군이 많이 주둔했던 특성상 한국영화제작 시스템에 미국의 영향력은 배제할 수 없었다. 1956년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었던 공보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공보실로 승격됨과 동시에 영화과는 공보실의 선전국 산하로 이관되었다. 이후 영화과와 대한영화사가 “대한민국 문화영화의 메카”가 되었고 외국 원조에 힘입어 영화 제작 능력이 향상되었다. 1956~1958년 사이 한국의 문화영화 제작편수는 급진적으로 늘었다. 1957년 대비 1958년에는 두 배의 국산 영화(74편)이 제작되었고 1959년에는 100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되게 된다. 총 상영 영화에서 국산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쟁 직후 5%에 그쳤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여 1959년에는 35%를 차지하게 된다.

연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제작사	4	12	10	26	12	26	71

<표 4> 1950년대 연도별 국내 영화 제작사 수

(출처: 『한국영화자료편람(초창기~1976)』, 서울: 영화진흥공사, 1977)

1959년 주한미경제협조처(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인 시라큐스 콘트랙트(Syracuse Contract)에 의해 한국 영화 인력들을 대거 인디애나 대학에 유학을 보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하던 일본이나 미국의 영화 제작 기술에 의존적이던 인력들이 교체되었다.⁸⁸⁾ [표4]는 1950년대 10~20개에 머무르던 국내 영화 제작사 수가 시라큐스 콘트랙트 이후 1959년 71개로 급진적으로 늘어남을 보여준다.

88) 국가 기록원 :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http://theme.archives.go.kr/next/movie/viewMain.do> (검색일: 2018년 4월 1일)

미국은 미공보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영화에 관여하여 2/3 이상의 영화를 미국 영화로 배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라큐스 컨트랙트를 통해 내수 제작되는 영화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영화 상영이 어렵과 문맹률이 높았던 농촌에는 한국의 재건을 명목으로 지역 구석구석에 미국이 자유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뉴스영화와 문화영화를 이동영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영하였다. 1959년 한국정부의 농촌 상영 횟수는 농림부가 미공보원의 이동영화반 상영 횟수는 총 7,000회가 넘었으며, 관람자수도 680명에 육박했다.⁸⁹⁾

다른 나라에 의존적이던 영화 제작 기술은 점차 주체적으로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영화의 내용들은 한미경제조정관실(OEC)의 요청으로 제작된 계몽영화, 교육영화들이 많았고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반공’을 외치는 영화들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한국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분단국가가 되어 더 이상 한 민족 한 국가가 아니었다. 가족 구성체가 분열되고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분단국가로서의 정체성은 하루빨리 정립시키는 것이 요구되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 영화내용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반공’을 내세워 한국이 자유진영의 최전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기하자 6.25>(1957, 윤기범), <두 세계의 사람들>(1959, 최창균), <제5차 아세아반공대회>(1959, 정연구)와 같은 영화⁹⁰⁾들은 반공을 최우선 과제로

89) 국가 기록원: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http://theme.archives.go.kr/next/movie/viewMain.do> (검색일: 2018년 4월 1일)

90) <상기하자 6.25>는 6.25 전쟁에 대한 24분의 영상기록물이다. 1950년 6월 북한군의 기습남침, 피난민 행렬, 포항 작전, 낙동강 작전, UN군의 총공격, 국군의 서울입성, 원산탈환, 평양탈환, 중공군 개입, 흥남철수작전, 1.4후퇴, 국군 서울 재탈환, 말리크 소련 유엔대표 휴전회담 제의,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 석방, 휴전협정 조인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세계의 사람들>은 자유세계의 단결을 호소하는 영상기록물이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국민들의 모습을 중공과 대만, 동독과 서독의 사회, 경제 모습을 통해 비교하고 있다. 자유세계는 파괴와 침략을 일삼는 공산세계를 견제하기 위해 단결하여 승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차 아세아 반공대회>는 14개 회원국 및 6개국 참관인들이 참석하였고 각국 대표들이 반공을 강조하

여겼던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어받은 한국의 수동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국가의 ‘재건’을 목표로 한 외국의 원조를 홍보하는 영화들이 많았다. 이미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은 곧바로 전쟁까지 겪으면서 자력으로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전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 미국과 관련된 영상기록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⁹¹⁾

2) 한국영화 속에 나타난 서구문화의 화려함

한국의 1950년대 중후반은 미국영화가 대대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였다.⁹²⁾ 한국영화자료편람에 따르면 1959년 한국에서 상영된 외국의 영화는 총 203편이었는데, 미국(160편), 영국(2편), 프랑스(10편), 이탈리아(9편), 서독(15편), 기타(7편)로 미국 영화가 80%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사회에서 미국 영화가 대다수를 차지한 점⁹³⁾은 문화의 소비가 단순히 대

는 연설을 했던 제5차 아시아 민족 반공대회 영상 기록물이다.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참조.

- 91) <콜터장군>(1958)은 6.25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유엔한국재건단(UNKRA) 단장으로 파견된 콜터장군의 업적을 다룬 영상기록물이다. <덜레스내한>(1959)는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영상기록물이다. 이외에도 <UNKRA의 업적>, <OEC와 한국부흥> 등 한국의 재건을 도와주는 미국의 노력을 담은 영상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 92) 당시 한국 대중들에게 미국영화의 인기는 서구영화 중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한 예로 남녀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을 나열한 50년대 중반의 기사를 들 수 있다. 대학생들이 감명 깊게 본 영화로 꼽은 것들로 1위는 시네마스콥 영화 <성의The Robe>, 2위 <황혼Carrie>, 3위 <외인부대Le Grand Jeu>, 4위 <종착역The Last Station> 등이었다. 지나롤로브리지다 주연의 프랑스 영화 <외인부대>(14)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할리우드 영화 혹은 할리우드 자본에 의한 합작 영화들이었다. 「남녀 대학생의 생활 발견」, 『경향신문』, 1955.7.23. 재인용 : 노지승, 육상호 “1950년대 한국 영화의 할리우드 영화 모방 양상 연구”, 『한국학연구』 38호, 2015, p.394
- 93) 1950년대 한국에 수입된 서구영화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이선미, 이순진 그리고 노지승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선미,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상허학보』 18집, 2006. 10p; 이순진, “한국영화의 세계성과 지역성, 또는 민족영화의 좌표-1950년대 영화 비평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9호, 2012. 8p; 노지승, “1950년대 후반 한국에서의 서구영화 수용과 모방의 양상”, 『국어교육

중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가 한국 사회에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는 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⁹⁴⁾ 대중들의 선호로 인하여 미국 영화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영화 산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하여 미국 영화가 한국에 대거 수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향적인 문화 흐름의 제약을 반제국주의의 옷을 입은 제국주의라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⁹⁵⁾ 한국의 지식인들은 유럽 문화를 미국 문화보다 더 고급 문화로 여겼고 미국 문화를 소비성이 다분한 문화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불어 미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하였는데, “미국화란 실상 미국을 실제로 모방하는 것과는 거의 무관하게, 대중들의 마음속에 ‘아메리카’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었다.”⁹⁶⁾고 말한 바와 같이 한국 대중 속에 아메리카는 개인 혹은 국가의 표본로 자리잡았다.

대중 매체에서도 외국 영화, 주로 미국 영화에 대한 소개, 배우들에 대한 소개를 자주 게재함으로써 그들의 사상과 외면이 익숙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대표적인 여성잡지 『여원』에서는 한국에서 상영 중인 외국 영화의 포스터를 보여주기도 하고, 대표적인 외국 배우를 소개하기도 한다. 또한 외국 영화 소개란, 배우나 감독 등의 인터뷰도 자주 등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구미에서는 관능적인 영화제작에 골몰한다. ‘마릴린 몬로’는 그 대표적인 여배우인 것이다. 이 관능적인 매력이 지난여름이 나라 여성들에게 노출병을 가져와서 이렇궁 저렇궁 말썽이 많았다.

이러한 풍습이 수입되어 한국의 지극히 엄한 봉건적인 남녀 윤리를 깨뜨린다고 일부 비난도 모르는 척, 이 관능적인 영화는 여전히 어디서나 만원을 이루고, 그 속에서 흥분하는 에로틱하고 저속한 영화라 할지

연구』, 2015.2. 참조.

94) 노지승, 육상호, “1950년대 한국영화의 할리우드 영화 모방 양상 연구.” 『한국학연구』, 제38집 8호, 2015, p.390

95)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윤수종 옮김, 『제국』, (서울: 이학사, 2001), p.239~243

96) 김학재 외,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빠라춤과 댄스홀 가고』, (파주 : 창비, 2016), p.160

라도 그들은 자기나라의 암흑면 오욕(汚辱)을 태연히 묘사하고 그것을 쳐부수려는 방향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면이 또한 결단성이 없는 현대 인테리에게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⁹⁷⁾

미국 영화에 열광하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없었던 풍요로움과 자유를 미국 영화를 소비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일탈 심리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 수입되었던 외국영화는 봉건적인 한국윤리와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장면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전후의 비참한 현실을 잊어보고자 하는 노력은 영화 제작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김미현은 “대중은 피난지의 피폐한 현실을 스크린에 펼쳐진 환상에서 위로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⁹⁸⁾ 한국에 할리우드 영화가 수입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화려하고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 영화 제작이 많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네오리얼리즘(Neo-realism)⁹⁹⁾의 영향을 받아 전쟁 직후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담은 영화¹⁰⁰⁾들도 많이 제작되었다. 전자의 경우 한국 영화는 전후 현실에서 빠져나와 서구 문화로 둘러싸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경향을 띤다. 한 외국인 감독은 한국영화가 전후 현실에서 벗어나 근대화된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역사나 신화에서 취재한 영화는 잘 만들면 상당히 흥미를 끌고 인기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들은 그 때와 민족 감정의 변화에 의하여 다르고 거기 따라 매표구에 영향이 온다.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리어리티(reality)’의 세계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것은 ‘춘향전’ 다음에 다른 역사영화들이 좀더 무난한 세계

97) ”왜 현대인은 영화에 감명되나“ 『여원』, 1956년 4월, p.198

98) 김미현, 『한국 영화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38

99)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후 사실주의를 추구했던 이탈리아 영화의, 경향을 말한다. 전쟁 중에는 파시스트 정권의 예술적인 억압에 대항하여 형성된 영화 운동이었고 전쟁 후에는 전후 이탈리아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데 치중하였다.

100) 대표적으로 <오발탄>(1961), <휴일>(1968)과 같은 영화들이 있다.

로 후퇴하려고 하는 민중들의 요망에 응하여 계속하여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 국민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들은 다시 한 번 전환하는 세계에 부딪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신 구 양 생활태도의 충돌은 필연적이고 이것이 현대생활로서의 영화에 옮겨지며 때로는 과장되어 나타나기도 한다.¹⁰¹⁾

1956년 11월 21일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휴일>¹⁰²⁾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희원의 직업은 비너스 산부인과 의사이다. 신문기자인 남편 재관보다 수입이 더 많다. 아침부터 이들이 느긋하게 휴일의 일과를 얘기하는 장면은 깊은 인상을 준다. 단 5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대화 속에서 “시간을 엔조이(enjoy)하고 있지 않고.” “당신은 너무나 에고이스트(egoist)예요.” “플랜(plan)”, “스케줄(schedule)” 등의 영어를 스스럼없이 섞어 말한다. 뿐만 아니라 희원이 입은 한복은 어딘지 모르게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¹⁰³⁾의 의상과 비슷하고 일반한복에 비해 화려하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주인공 재관의 모습,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는 여자주인공 희원의 모습은 한국전쟁이 끝난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서울의 중산층에 서구 문화가 깊이 침투해 있음에 더욱 놀랍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 신문을 보면 특히 광고 지면에 영어로 된 제품명, 영어를 사용한 제품설명이 실려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101) “외국인이 본 한국영화” 『여원』, 1956년 4월, p.198

102) 이 영화는 외화수입을 해오던 신성영화사에서 처음 제작한 영화로 8월에 촬영에 들어가 11월에 개봉되었다. 1950년대 중반의 종로와 남산, 탑골공원, 경복궁 등 서울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또한 해방과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서구의 문화가 물밀듯 들어온 한국 사회의 일면을 풍속화처럼 그리고 있다. 같은 해에 개봉되어 화제가 된 영화 <자유부인>에서 그려진 상류층의 부패와 일그러진 성윤리와 도덕성의 문제가 <서울의 휴일>에서도 간접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일상이 무료한 유부녀들의 가벼운 일탈, 사랑하는 애인에게 실연 당해 정신병에 걸린 여인, 직장 취직을 빙자해 여인에게 임신까지 시키는 건달, 살인사건 용의자 등 당시 신문 사회면에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영화 속에 코믹하게 녹아 있다.

103) 영화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헵번은 당시 한국에도 큰 인기를 얻어 한국여성들 사이에서 오드리헵번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서울의 휴일>은 <로마의 휴일>과 줄거리는 다르지만 <로마의 휴일>을 연상케 하는 연출을 하였다.

희원은 모처럼 남편과 휴일을 보내기 위해 짠 하루 일과를 그에게 들려준다. 그녀가 제시한 휴일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 아침 10시 20분 출발준비 완료
- 10시 30분 신신백화점 양품부에서 넥타이와 파라솔 구입
- 12시 아서원(청요릿집)에서 고급중국요리 점심
- 1시반 한강 도착 스케이드 보드와 수상스키
- 3시반 덕수궁 산책
- 4시반 영화관람
- 6시반 미장 그릴에서 스테이크로 저녁식사
- 7시반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야외연주회 관람

휴일의 플랜을 말하는 희원은 시종일관 대화 속에서 재관을 리드한다. 게다가 이 뻑뻑한 일정에 돈의 출혈이 크겠다는 재관의 말에 희원은 2만5천원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그 중 5천원만 부담하라는 말을 한다. 희원은 기자인 남편 재관의 한달 월급보다 많은 휴일 하루의 지출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가부장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아내가 휴일의 계획을 짜고 남편은 이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결국 휴일의 계획을 남편과 실천하지 못하고 혼자서 서울을 돌아다니며 남편의 친구들과 골프내기까지 하는 희원의 모습은 전통적인 한국 여성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 영화는 일반 서민들의 삶과 차원이 다른 상류층의 일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1950년대 중반의 평범한 대중들에게 서구적인 것이란 주로 이렇게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상되었다. 영화의 배경, 등장인물의 옷, 헤어스타일, 대사 속 영어들은 감각이나 욕망의 구체적인 자극제로 작용하였다. 1950년대 중반 다양한 매체의 담론이 주로 서구 문화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것은 이런 대중들의 문화적 감각과 욕망이 서구적인 것과 만나고 있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950년대 한국의 상황 속에서 생활문화적인 양상으로 대중문화에 수용된 이 ‘서구’

적인 것들은 서구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졌다.¹⁰⁴⁾

3) 미 8군 쇼에서 태어난 한국의 대중음악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면서 문화적으로 가장 큰 전파가 있었던 분야는 바로 대중음악이었다. 특히 미군정부에서 성행했던 댄스홀에서는 미국의 대중음악이 나오면서 한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입되었다. 특히 댄스홀에서 나오는 음악은 “일제 시기 엘리트 음악 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연주활동을 한 전문 연주인”들이 전문적으로 연주를 하였다. 그렇기에 미군 부대 내의 각종 클럽 역시 이 연주자들에게는 중요한 무대였다.

미 8군 무대의 효시는 1945년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이 주둔한 곳에 재즈 밴드가 동원되어 원시적인 외화획득의 효시가 되었다”는 평론가 황문평의 회고라든지, “해방되던 해 반도호텔에서 지까따비(일본 버전 모양의 노동자용 작업화)에 모닝코트를 입고 미 항공단 환영 연주를 했던 김호길은 한국전쟁 후에는 대구에 머물면서 미군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동촌 비행장에 나가 연주를 했다”(〈동아일보〉, 1973년 4월 5일)는 기사는 참고할 만하다. 한국전쟁 직후까지는 미군 무대가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했음도 엿볼 수 있다.¹⁰⁵⁾

미군을 위로하는 공연 무대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는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해있던 한국전쟁 때였다. 더불어 일본에 있던 미8군 사령부가 1955년 7월 26일 서울로 이전하였다. 전쟁 과정에서 미군 주둔지에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등 당대 최고의 미국 인기 가수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위

104) 이선미, “미국적 가치의 대중적 수용과 통제의 메카니즘-1950년대 대중서사의 부부/가족 표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54호, 2011 p.49

105) “미군클럽서 ‘훈련받은’대중음악”, 『한겨레』, 2005년 7월 6일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5/07/009000000200507061822043.html> (검색일: 2018년 4월 1일)

문 공연을 하였고 이들의 공연은 대중음악 관계자들에게 큰 자극과 영감을 주었다. 실제 미8군쇼는 음악이 중심이었으나 무용, 코미디, 마술 등이 가미된 버라이어티쇼에 가까웠다. 하지만 미군을 위한 무대를 미국 인기 가수들로 항상 채울 수는 없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바로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국 대중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미 8군 쇼는 당시 1950년대 유행했던 유랑극단이 노래와 춤으로 공연을 하는 악극에 비해 규모도 크고 수입도 컸을 뿐만 아니라 최신 서양 음악을 연주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배고픈 한국의 음악인들에게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1950년대 중반 전국의 미군 클럽 수는 264개에 이르렀고 각 클럽마다 속해있는 가수와 밴드는 여러 팀이 있었다. 미 8군 쇼 무대에 설 수 있는 가수와 밴드를 관리해 줄 업체도 필요해졌다. 1957년 처음으로 미8군 쇼 무대만 상대하는 용역업체 ‘화양홍업’이 탄생하였다. 뒤이어 유니버설, 아주, 삼진, 공영, 대영 등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당시 미군이 한국인 쇼 공연단에 지불하는 금액은 연간 120만 달러에 육박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한국의 연간 수출액과 맞먹는 액수였다.¹⁰⁶⁾

하지만 미 8군 쇼에 진출하는 길은 험난했다. 분기별로 미 국방부에서 파견한 음악전문가가 실력과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용산에 있는 미 공보원에서 공개 오디션을 거쳐야만 했는데 등급이 꽤 세분화되어있고 심사기준이 까다로웠다.¹⁰⁷⁾ 심사 과정에서 다른 요인들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하였다. 오디션의 평가 기준은 미국의 유행곡을 원곡과 최대한 가깝게 연주하는 것이었다. 미 8군 쇼를 통해 데뷔한 대표적인 스타 패티김은 미 8군 쇼 오디션에서 스페셜 A 등급을 받아 미 8군 쇼에 데뷔한 후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한국 대중음악의 거장이 되었다. 그만큼 미 8군 쇼 무대에 서는 것은 어려웠고 철저히 미군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구조였다. 미 8군 쇼는 196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고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쇠퇴하였는데 다음의 기사가 미 8군 쇼의 역사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106) 브랜드스토리, 『K-POP의 고향 동두천』, (서울: 멋진세상, 2012), p.14-15

107) 심사 기준의 등급은 AA,A,B,C(탈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 8군 쇼 무대는 한국동란이 낳은 또 하나의 부산물이었다. 한 때는 이땅의 연예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던 한국 속의 이방무대도 이제는 우리들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다. 로큰 롤의 선풍과 함께 막을 올려 그동안 술한 재즈곡 유행의 창구구실을 했던 UN군 대상의 8군 쇼도 이젠 몇 개의 무대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기성가수들 가운데 특히 30,40대의 중견습이면 일단은 8군쇼 출신으로 보아 무방하다. 통칭 8군쇼란 주한 유엔군의 흠시크를 달래주기위해 마련된 위문무대를 일컫는 것으로 한때는 국내가요계의 실질적인 신인배출의 창구 역할을 했던 호화로운 선망의 무대였다. ...중략...미8군 무대는 진중쇼로도 한몫을 했다. 6.25동란이 한창일 무렵, 지방을 순회 공연하던 유랑극단과는 별개로 유엔군의 주둔지를 두루 순회하면서 위문공연을 통해 전상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중략... 연예인들이 한창 성시를 이루던 65년경에는 오디션(시연회)과정을 통해 S급 A급 B급으로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개런티를 지급, 인기척도의 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¹⁰⁸⁾

당시 한국 연예인들은 미국의 버라이어티쇼를 경험하고 이들의 방식과 노하우를 배우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작곡에서부터 가수 선발, 작사, 녹음, 홍보까지 일제 시대에 주로 대중음악 형성에 주 기여를 한 음반회사는 이 당시에는 힘을 잃고 영세화 되었고 가수 및 작가는 음반회사에만 의지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다.

미 8군 쇼의 연예인 이외 대중가요를 생산하는 일차적 담당자인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은 어떠하였을까? 1950년대 상황을 비교해서 볼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한계를 무릅쓰고 일제 강점기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작품수가 많은 상위 작사가 10명, 작곡가 15명, 가수 30명을 선정하였을 때, 1950년대 활동을 한 작사가는 없으며, 작곡가는 1/3 수준, 가수는 1/6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1950년대 대중가요의 지속성이 일반적인 통념처럼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점

108) 『경향신문』, 1974년 10월 24일, 6면

이다. 그리고 사망이나 인기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장은 별개의 문제이나, 분단 및 전쟁으로 인한 주요 생산 담당자가 사라진 점은 한국대중가요 배후에 자리를 잡은 강한 후폭풍인 셈이다.¹⁰⁹⁾ 이 같은 상황에서 가수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살린 노래를 창작하는 것이 아닌, AFKN(American Forces Korea Network) 라디오를 통해 미국 최신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모방하는데 치중하였다.

이 당시 인기를 끌었던 노래들은 미 8군 쇼에 등장하던 노래들이 대다수였다. 노래 제목에 가장 많이 쓰인 나라는 역시 미국인데 ‘샌프란시스코’, ‘아리조나 카우보이’,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등의 노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재미교포의 심정을 담기도 하였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작사가 손로원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의 참혹함과 실향민의 그리움을 담은 노래를 많이 작사하였다. 하지만 <에레나가 된 순이>¹¹⁰⁾를 발표하면서 절필을 선언하였는데 그 이유는 착한 시골 처녀인 순이가 살아남기 위해 ‘에레나’가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손로원은 전후 현실에 대한 방관자로 살았으나 부산항에 들어선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온 적십자 병원선을 보고 이들을 위해 노래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작사하게 된 것이다.

비너스 동상을 얼싸안고 소근대는 별 그림자

금문교 푸른물에 찰랑대며 춤춘다

울려라 샌프란시스코야 태평양 로맨스야

나는야 꿈을 꾸는 나는야 꿈을 꾸는 아메리칸 아가씨

샌프란시스코(1953년), 손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

109) 이준희. “195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두 모습, 지속과 변화.” 『대중서사연구』, 제 13권 1호, 2007. p.73-104

110) 안다성은 1959년 “에레나가 된 순이”에서 ‘순이’라는 이름의 순박한 소녀가 ‘에레나’라는 이름의 양공주가 된 것을 신파적으로 들려준다. 미국식으로 “이름조차 에레나로 달라진” 여인으로 변하고 “말소리도 이상하게 달라진” 여인으로 바뀌어 파티에서 춤추는 모습을 애절하게 그리고 있다. 당시 수많은 여성들이 배고픔에 못 이겨 양공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에레나’라는 이름으로 많이 개명하여 ‘에레나’는 당시 양공주의 표상이 되었다.

부산항에서 마주한 외국의 도움의 손길에 대한 보답을 본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샌프란시스코의 자유분방한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것은 당시 한국인은 미국을 ‘자유’의 표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 속의 ‘꿈을 꾸는 아메리칸 아가씨’라는 구절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듯이 한국인에게 미국은 ‘꿈’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영어단어인 ‘샌프란시스코’ ‘비너스’ ‘아메리칸’ 등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선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당시의 세태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¹¹¹⁾

V. 문학 작품에 나타난 좌절과 절망

1. 전후 문학의 성격

전후 한국사회는 전쟁으로 인해 도덕적 타락 및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학예술(1954), 현대문학(1955), 사상계(1955), 자유문학(1956) 등이 창간되어 전후 지식인들의 가치관을 문학작품을 통해 표현해 내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분단국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진 황폐한 ‘유령국가’로 만들었다. 한국인들 또한 전쟁이 가져다 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역사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1950년대의 비참함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이면에는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¹¹²⁾ 전후 문학은 극한적 상황 속에서도 형성되었고 전쟁과 시대상황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한국 현대문학에서 ‘전후 문학’이라 함은 구인환 외 공저인 『한국

111) 강준만, 『미국사 산책 8 : 미국인의 고독과 풍요』,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0)

112) 존재에 대한 회의감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개인으로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회의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후문학연구』에서 “1950년대의 문학”,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전후 4.19 전까지라는 공간에서 형성된 문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수영, 박인환, 김춘수, 손창섭, 장용학, 김성한, 차범석, 고석규, 정태용 등이 이 시기의 문학 작가에 해당한다.¹¹³⁾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 문학은 전쟁 직후의 타락한 인간성을 보여주거나 황폐하고 암울한 국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비일비재하였다. 즉, 1950년대 중후반 한국 문학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투영하고 외세에 흔들리는 존재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 직후 국가의 행정구조는 근대 국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으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생존에의 위기의식’, ‘존재론적 불안의식’, ‘윤리적 기만의식’의 사고로 인해 진정한 근대성을 잃어가고 있던 시기가 1950년대였다.¹¹⁴⁾ 한국 전쟁 직후의 현실은 “모든 것이 끝났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기”였다. 전후 현실의 성격은 양면적이었는데, 윤리, 사회의식의 부재가 존재함과 동시에 재건의 열망과 존재의 재규정이 요구되었다. 김영범은 “한국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존재 기반의 총체적 상실을 체험”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전후 작가들 가운데서도 손창섭과 최인훈은 전후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기법을 사용한 작가이면서 전후 현실의 비참함 속에서 인간 존재와 관련한 지식인의 끝없는 고뇌를 작품 속에 나타내었다.

2.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군소리의 의미』

강준만은 “전쟁 중, 그리고 전후의 비참한 삶을 가장 비참하게 묘사한 문인”¹¹⁵⁾으로 손창섭을 꼽고 있다. 그의 소설의 특징은 “전쟁으로 망

113) 박현수, “한국문학의 ‘전후’개념의 형성과 그 성격.”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9권, 2016

114) 오윤호 탈식민 문화의 양상과 근대 시민의식의 형성 “하정일은 1960년대 문학의 특징을 주체의 복원이라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1950년대에는 ‘인간은 있되 주체는 없다’(『분단자본주의 시대의 민족문학사론』, 서울: 소명출판, 2002, p.212)”고 밝혔다.

115) 강준만, 『한국근현대사 산책 2: 6.25전쟁에서 4.19 전야까지』, (서울: 인물과사상

가지고 뒤틀린 한국 사회의 현실과 이런 현실 속에 함부로 내팽개쳐진 인간의 무가치성, 모멸감, 허무”를 무기력한 등장인물들의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이다.

1955년 6월 『현대문학(現代文學)』에 발표된 손창섭의 단편소설 『미해결의 장-군소리의 의미』는 여느 손창섭 소설의 전후 암울한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소설이다. 해결을 찾아 방황하는 주인공 지상과 아메리카 드림에 젖어있는 그의 가족, 진성회(眞誠會)의 일원인 문선생과 장선생, 창녀 광순 등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미해결의 장’이란 제목부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심장하게 함축하고 있다. 주인공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도 없이 미해결로 끝나버리는 결말 또한 제목 ‘미해결’의 의미에 더욱 부합한다. 첫 구절부터 주인공 지상은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은 ‘집을 떠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해결을 짓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지상의 삶은 주변 관계들로부터의 ‘필연성’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해결을 하고 싶어도 생각에만 머물 뿐,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동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져있다.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나는 집을 떠나야만 할까 보다. 그것만이 우선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해결일 듯싶게 생각되는 것이다. 그 ‘해결’이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내 맘에 꼭 드는 것이다. 그 말은 충분히 나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나는 언제가 되면 노상 집을 떠날 수 있을 것인가? 하루에 몇 번씩 혹은 몇 십번씩 ‘해결’을 생각하고 거기에 도취하면서도 종내 나는 해결을 짓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¹¹⁶⁾

주인공 지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유학’을 포기한 것으로, 그의 가족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오로지 영어

사, 2006) p.94

116) 손창섭, 『미해결의 장』, (서울 : 민음사, 1996), p.66

를 배워서 미국에 유학가는 것만이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이상향으로 여긴다. 하루 3끼도 챙겨먹지 못하고 궁핍하게 사는 생활 속에서 미국 유학의 환상에 젖어있는 것이다. 지상가족들의 미국유학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손창섭 소설 인물들의 대표적인 특성, ‘비정상성’이 나타나 있다.

지숙은 여자 대학생이다. 그러면서도 오후에는 일찌감치 돌아와서 제 품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나를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미국 유학을 단념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어이없게도 우리 집 식구들은 온통 미국 유학열에 들떠 있는 것이다. 이제 겨우 열한 살짜리 지현이 년만 해도, 동무들끼리 놀다가 걸핏하면 한다는 소리가 “난 커서 미국 유학 간다누”다. 그게 제일 큰 자랑인 모양이다. 중학교 이학년생인 지철이는, 다른 학과야 어찌 되었건 벌써부터 영어 공부만 위주로 하고 있다.....중략.....우리 오 남매 중에서 맨 가운데에 태어난 지웅이 또한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일학년인 그 녀석은, 어느새 미국 유학 수속의 절차며 내용을 두르르 꿰고 있다.¹¹⁷⁾

지상과 그의 가족의 연결고리는 오로지 ‘미국 유학’이다. 1950년대 중후반에는 ‘미국 유학’이란 신분 상승하여 지배 계층으로 진입하는 통로였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¹¹⁸⁾

지상이 법과대학에 간 이유도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는 법과대학에 간 후 미국유학을 다녀오면 장관자리 하나는 꿰찰거라고 말했지만 지상은 법과대학에 들어갔으나 미국유학에는 회의적이다. 그 후 그의 아버지는 지상에게 “죽어라, 죽어!”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는 아버지를 ‘대장’이라는 희화화된 단어로 설정하여 흔히 가장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위엄이 없는 “굶지 않으려고 버둥대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지상의 아버지가 속해있는 진성회 구성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진성회는 문선생, 장선생, 지상의 아버지가 속해 있는 모임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117) 손창섭, 1996, p.67-68

118) 이선미, “1950년대 미국유학 담론과 ‘대학문화’”. 『상허학보』, 제25권, 2009, p.242

사람들끼리 모여 국가 민족과 인류사회를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일을 하다가 죽자는 것”이 취지이다. 하지만 진성회는 허울뿐이고 진성회의 구성원 모두 가장의 역할을 상실한 무능력자들뿐이다.

하지만 진성회는 허울뿐이고 진성회의 구성원 모두 가장의 역할을 상실한 무능력자들뿐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가장 진실하고 성실한 인간”이라 자부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정례 회의를 열고 세상이 자기들을 몰라주고 하늘이 때를 허락하지 않음을 개탄”한다. 피란 중 부인을 잃은 ‘문 선생’¹¹⁹⁾은 세 명의 자식이 있는 가장이지만 여동생인 광순에게 전적으로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 광순이가 돈을 버는 수단은 ‘몸 파는 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 선생’은 “거대한 체구에다 조그만 에이프런”을 두르고 종일 집을 지킨다. 손창섭은 ‘진성회’의 이름과 전혀 맞지 않는 구성원들의 삶으로 무기력한 남성들을 희화화하고 전후 남성들의 무기력함을 낱낱이 보여준다. 하지만 집안의 생계를 도맡아야했던 여성들은 비정상적인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 장 선생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지만 초등학교 준교원인 부인이 생계를 책임진다. 또한 지상의 어머니도 가장의 역할을 도맡으면서 “흡사 중병을 치르고 난 사람처럼” 야윈 모습으로 묘사된다. 더 나아가 손창섭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낸다.

국민학교의 그 콘크리트 담장에는 사변 통에 총탄이 남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다. 나는 오늘도 걸음을 멈추고 그 구멍으로 운동장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 마침 쉬는 시간인 모양이다. 어린애들이 넓은 마당에 가득히 들끓고 있다. 나는 언제나처럼 어이없는 공상에 취해보는 것이다. 그 공상에 의하면, 나는 지금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병리학자인 것이다. 난치의 피부병에 신음하고 있는 지구덩이의 위축을 받고 병원체의 발견에 착수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도 그 세균이 어떠한 상태로 발생, 번식해 나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²⁰⁾

119) 작품 속에서 문 선생은 위장병으로 인해 가장의 노릇을 못하는 폐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120) 손창섭, 1996, p.73

지구에 질병을 가져다 준 존재는 ‘인간’이라는 박테리아이지만 박테리아의 근원에 대해서는 미해결이다.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상에 병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초등학교의 담장에 총탄이 난 구멍들은 전쟁의 흔적들을 나타낸다. 그 구멍으로 ‘어린애’들이 ‘들끓는 모습’을 관찰하는 일은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는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연상되었을 것이다. 그 어린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사상까지도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각없이 목숨만 보존하고 있는 허울뿐인 인간의 모습이 상상될 것이다. “하구 많은 사물 가운데서 어찌자고 하필 인간으로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일즉이 나는 인간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도 자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¹²¹⁾라는 손창섭의 언급에서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에 대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작품 곳곳에는 이렇듯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특히 인간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나 있다. 존재의 가치조차도 위태롭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는, 인간은 왜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해 회의가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지상이 겪는 문제, 더 나아가 한국전쟁 직후 한국인들이 내외면적으로 겪었던 문제 또한 미해결의 상태였고 ‘존재의 문제’였다.¹²²⁾ 『미해결의 장』 작품 속에서 하나같이 결함이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풍자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광순은 내게 엉뚱한 질문을 하였다.

“대체 날 뭐 하러 찾아오군 하세요? 지상은 나한테 뭣을 기대하느냔 말예요.” 물론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짜장 광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건 확실히 내게는 과중한 질문인 것이다. ‘너는 왜 사느냐?’ 하는 물음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질문의 여독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골치가 아팠다. 광순의 미소에서 나는 좀 실망한 것이다. 낡은 노트장의 여백에다 이런 군소리를 끄적거리고 있는 지금도 나는 딱하기만 한 것이다.¹²³⁾

121) 손창섭, “당선소감 : 인간에의 배신” 『문예』 1953.7 p.76
 122) 최정운, 『한국인의 발견』, (서울: 미지북스, 2016), p.132
 123) 손창섭, 1996, p.86

어느 날 지상은 광순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가 저녁때가 되어 가족들과 쌀알이 거의 없는 우유죽을 먹다가 동생 지숙이가 다니는 대학을 그만둔다면 죽이 아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한 탓에 대장에게 꾸중을 듣는다. 그 길로 밖으로 나와 광순이의 '오피스'로 간다. 여대생 신분으로 저녁에는 몸파는 일을 하는 광순에게 종종 용돈을 받아쓰고 지상은 그녀의 웃음을 좋아한다. 광순에게 저녁을 사먹을 돈을 받아들고 지상은 골목 어귀에 있는 도넛집으로 가 젠자이(일본식 팔죽)를 시킨다. 그러다 문득 갑자기 저녁을 굶어 밥을 먹어야한단 이유로 돈을 치루고 나와 양식집에 들어간다. 돈이 부족해 음식을 시킬 수 없어 음식점 종업원 소녀에게 당한 무시를 갚아주고자 광순을 데리고 양식집에 다시 갔으나 그 소녀는 없다. 그래서 지상과 광순은 다른 음식점으로 가서 엉뚱한 비빔밥을 먹는다. 지상이 저녁 한 끼를 먹기 위한 경로는 굉장히 복잡하다.(집-광순의 오피스-도넛집-양식집-광순의 오피스-양식집-음식점) 이는 지상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줌과 동시에 작가 손창섭의 내면세계 또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방황하는 면모로 해석할 수 있다. 전후 한국사회에서의 지식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의 사상을 강압적으로 강요받았고 해방 후부터 근대성이 결여한 한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서구식 민주주의가 유입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은 국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모두 취약했던 시기로, 해방 직후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의 틀을 세우고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적 기반이 정립될 수가 없었다.

국가적 기반이 갖춰져있지 않은 국가에서 사는 국민은 당연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취급받지 못하는 유령국가의 신세는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를 거부하고 존재를 경멸하게 만들었다. 이는 『미해결의 장』 작품 속에서 지상이 음식점 안에서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상은 양식집에서 종업원 소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는 눈치로 바라본다고 느낀다. 밥 한 끼를 제대로 사먹을 수 없었던 가난한 지상은 주위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초리조차 자신의 처지를 경멸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광순에게 돈을 받아 다시 양식집의 종업원 소녀를 찾아가지만 그 소녀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자 그 집에서 먹을 이유가 사라져 다른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던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가난으로 인해 하찮은 존재로 비춰지는 것을 거부하려하지만 광순이의 무엇을 기대하고 찾아오느냐 질문에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진다.

좀 뒤에 나는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인간도 유령도 아닌 너무나 막연한 자신의 물골을. 하여튼 나는 한사코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나도 어디든 가야 할 게 아니냐! 우리 집 식구들이 미국 가기 위해서만 살 듯이 나도 살아 있는 이상 어디든 가야 할 게 아니냐 말이다.¹²⁴⁾

지상은 자기 자신이 인간도, 유령도 아닌 무의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손창섭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간상은 ‘환멸’과 ‘냉소’로 일관된다. 그는 전후 젊은이들의 심리상태를 묘사하여 당대의 젊은 세대의 인기를 얻었다. 작품 속에 나타난 암울한 분위기,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인물들의 심리상태, 불구적인 인물들이 드러내는 자조 의식과 자기모멸은 당시 젊은이들이 전쟁을 겪고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이다.

손창섭 소설의 특징은 표면적으로 비정상적이고 무기력한 인간상을 제시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는 의식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손창섭의 또다른 소설 『잉여인간』의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무직이면서 실의에 빠져있다. 예를 들어, 첫 장부터 “실의의 인간”이라 칭하고 있는 천봉우는 언제나 말수가 없고 조용하다. “방금 자다 깬 사람 모양 정신이 들어 보이지 않는 표정”을 하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작가는 그 이유를 육이오 사변을 겪었기 때문이라 기술하고 있다. 피난 갈 기회를 놓치고 3개월 간 서울에서 숨어 지내다보니 반공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쟁은 이미 종결되었으나 소설 속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존재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과정도 하나의 의식의 진전 과정으로

124) 손창섭, 1996, p.92

볼 수 있다. 지상이 “인간도 유령도 아닌” 자신의 몰골을 발견하고, 어디든 가야한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뚜렷한 지향점은 없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진전해야 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혼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재건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손창섭의 또다른 소설 『잉여인간』에서도 현실 자각을 요하는 모습이 보인다.

언젠가 어느 경솔한 외국 기자가 한국을 가리켜 도둑의 나라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의 일이다. 대개의 신문이나 명사들이 그 기사를 쓴 외국 기사를 비난하고 한국의 사회 실정을 엄폐 변명하려는 논조로만 치우쳐 있었다. 익준은 거의 매일같이 흥분해 있었다. 그 외국 기자야말로 한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투시하고 가차없는 비평을 가해 왔다는 것이다. 잠깐 다녀간 외국 기자의 눈에도 도둑의 나라로 비칠 만큼 부패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슬프고 부끄러울망정 바른 소리를 한 외국 기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덮어놓고 외국 기사를 비난 공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냉정히 반성하고 다시는 외국인으로부터 것처럼 치욕적인 말을 듣지 않도록 전국민이 깊은 각성과 새로운 노력을 가져할 일 아니냐.¹²⁵⁾

3. 최인훈의 『회색인』

최인훈은 소설을 통해 주로 전후 한국의 정치적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문학과 현실사회를 밀접하게 연결시킨 작가였다. “문학적 상상력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장 잘 인식해 온 작가”라는 평가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최인훈은 정치에 관한 이상주의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데 그의 소설의 주인공들 또한 현실정치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정치적 성향이 편향되지 않고 마치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배지연은 최인훈의 소설

125) 손창섭 『잉여인간』 (서울 : 민음사, 1996) p.291

중 『회색인』이 이러한 경향과 가장 밀접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¹²⁶⁾

최인훈의 소설 『회색인』¹²⁷⁾은 본래 『회색의 의자』라는 이름으로 1963년 6월에서 1964년 6월까지 『세대』에 총13회 연재된 소설이다. 하지만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4.19 직전의 1958년 초가을부터 1959년 초여름까지로, 최인훈은 당시 식민지의 정신사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지식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현실을 소설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¹²⁸⁾

주인공 독고준은 전쟁 중에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온 국문학도 학생이다. 즉, 사회의 엘리트 계층인 독고준은 더 나은 사회로의 행동을 주저하고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국은 이미 “구조할 수 없는 땅”이었고 “세계의 고아”였다. 독고준은 이러한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인식하였고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이렇듯 소설 속 대화와 독고준의 내면 묘사에서 전쟁을 겪고 난 직후의 지식인들의 무기력함이 드러난다.

또한 이 소설의 배경은 처음에 1958년 비 내리는 어느 가을 저녁으로 시작하여 1959년 비 내리는 어느 여름날 저녁으로 끝맺는다. 주로 전후 소설은 비 내리는 장면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비는 결국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결말을 맺는다. 그만큼 지식인들이 전쟁 직후 한국 사회를 우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색인 또한 비가 내리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지

126) 유종호, 『소설의 정치적 함축』, (서울: 세계의 문학, 1979), 85쪽. 재인용; 배지연 “최인훈 소설의 정치적 지향과 그 기원으로서의 서구 근대 사상”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16권 1호, 2015

127) 소설 ‘회색인’의 시대적 배경은 1958년 가을에서 1959년 여름 사이이지만, 실제로는 1963년 6월부터 1964년 6월까지 1년 동안 잡지 <세대>에 연재 발표한 장편 소설이다. 연재 당시 제목은 ‘회색의 의자’였다. 전쟁이 막 지나간 시기의 한국은 바로 재건을 꿈꿀 수 없는 상태였고 지식인들의 사고는 멈춰있는, 그야말로 정지된 상태였다. 최정운 교수의 『한국인의 발견』에서는 이 시기를 ‘냉동국가’로 표현하기도 한다.

128) “『회색인』의 독고준, 결국 투신자살한 이유는...” 『프레스시안』, 2010년 8월 27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5350> (검색일: 2018년 4월 20일)

식민의 모습을 독고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가졌다면 참 좋을 것이다. 먼저 그 많은 대학 졸업생들을 식민지 벼슬아치로 내보낼 수 있으니, 젊은 세대의 초조와 불안이 훨씬 누그러지고 따라서 사회의 무드가 느긋해질 것이다. ...중략... 대학에서는 국학의 연구가 성하고, 허균은 조너선 스위프트의 큰 선배며 토머스 모어의 선생이라고 밝혀질 것이며, 이퇴계의 사상이 현대 핵물리학의 원리를 어떻게 앞질렀나를 밝혀낼 것이다. 우리들의 식민지를 가령 나빠유라고 부른다면, “정송강과 나빠유를 바꾸지 않겠노라.”이런 소리를 탕탕 할 것이다. 식민지가 열을 찾아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 옛 지배층에게 뼈다귀나 던져주어 지킴개로 부리며 지방별과 족보, 사주 같은 것은 부추겨 저희끼리 싸움질하게 부채질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너무 족쳐서 뜻하지 않은 일을 빚어내지 않기 위하여 문치 비슷한 일을 물론 해야 한다. 불온한 청년들의 사명감을 피스럽게 돌려서 농촌 계몽으로 카타르시스시킨다.¹²⁹⁾

독고준은 한국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속에서 여전히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의 초반에 그는 만약 한국이 세계 강대국들과 같은 위치에 있을 시에 대한 반사실적 상상을 펼친다. 단순히 선망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상위 국가의 위치에서 하위 국가의 위치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시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후 미군정에 종속되어 있는 지배층을 비판하며 한 국가 내에서 분열되어 있는 한국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독고준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식민지를 식민지화시키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에 묶여있는 현실을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음에 고뇌한다. 즉, 식민지 피지배를 경험하였지만 식민주의에 대한 자기성찰이 없고, 더불어 서구에 대한 콤플렉스까지 생겨버린 당대의 한국 사회 현실을 비판한다.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제국주의를 대외 정책으로,

129) 최인훈, 『회색인』,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77) p.9-10

민주주의를 대내 정책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저 자유자재한, 행복한 시대는 영원히 가고 우리는 지금 국제 협조, 후진국 개발의 새나팔이 야단스러운 새 유행 시대에 살고 있으니, 민주주의의 거름으로 써야 할 식민지를 부양천지 어느 곳에서 손에 넣을 수 있으랴. 그러나 식민지 없는 민주주의는 크나큰 모험이다.¹³⁰⁾

독고준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지 못할 것이며 지금의 현실은 “후진국”이라 말한다. 그의 친구 김학은 독고준에게 행동해야 하지 않느냐 반문한다. 하지만 독고준은 후진적 현실에 “홀연히 나타날 궁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랜 침묵 속에 학은 독고준의 생각은 ‘비겁’하며 ‘무책임’하다며 다시 비판하였지만 독고준은 학의 말에 화난 듯한 말투로 일부 동의를 나타내지만 곧 자리를 떠난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의 현실은 국가의 재건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지식인들은 미군정의 지휘 아래 아무 의식 없이 착취의 과정에 동조하였다. 이를 최인훈은 소설 속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역사란 옛날 일도 아니고, 또 옛날을 돌이켜서 앞을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르주아 역사가들이 인민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낸 거짓말입니다. 역사란 계급투쟁의 과정입니다.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 간의 피 흘린, 그리고 흘리고 있는 싸움의 과정, 이것이 역입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지배자들이 어떤 피압박계급을 어떻게 착취했는가,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했으며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인민들의 눈을 속였는가를 연구하는 과학이 역입니다.¹³¹⁾

소설 속에는 유난히 “제국주의”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독고준이 살고 있는 도시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부대가 있는 곳이다. 미국의 제국주의는 이른바 반(反)제국주의처럼 보이는 제국주의라 할 수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는 “19세기 미국은 유럽의 권력에 대항하여 아메리카에서 유럽 식민주의에 대항했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130) 최인훈, 1977, p.11

131) 최인훈, 1977, p.29

는 소련의 권력에 대항하여 세계 전역의 나라들을 보호하는 위치를 자처했다.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는 건국 이후부터 키워진 것이며 다른 제국주의의 대한 대항을 자처하고 이를 명분화하면서 착취, 지배하는 제국주의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¹³²⁾

하지만 이 도시를 “나날이 부서져가는 도시”로 묘사한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되었지만 한국과 같은 신생독립국은 표면적인 지배를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취약국가(vulnerable state)’였다. 이택선은 한국은 냉전이라는 구조적 제약 아래 근대 국가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취약국가’로 출발하였다고 말한다.¹³³⁾ 자본주의¹³⁴⁾가 발달한 서구 국가들은 이에 적합한 정치, 사회구조가 함께 수반되고 부르주아 계급과 시민사회가 성장하여 근대국가건설 과정을 이끌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헤게모니를 지닐 수 있는 지배계급의 부재로 말미암아 근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은 지배계급이 미군정에 종속되고 엘리트들이 대거 미국유학을 떠나 미국의 틀을 배워오는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었다. 최인훈의 또다른 저서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정치가 어떡냐는 정 선생의 물음에 “오늘날 한국의 정치란 미군 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그 중에서 깡통을 골라내어 양철을 만들구, 목재를 가려내서 소위 문화주택 마루를 깔구,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목축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대답을 내놓는다. 최인훈은 1950년대부터 한국 정치는 이미 미국의 행정구조 틀을 본떠 만든 모방 작품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혁명’을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오로지 꿈꾸기만을 할 뿐, 실천으로 옮기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혁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결국 미국에

132)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옮긴이 윤수종 『제국(empire)』 (서울: 이학사, 2001) p.239-243

133)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형성과정(1945-5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134) 『회색인』에서도 “한국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모습의 사회로 변화한다. 바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만연한 사회”라고 언급하고 있다.

종속되어있는 한국의 처지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임을 시인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은 프랑스혁명이나 러시아혁명 당시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전자의 두 혁명은 모두 지배계급이 달라진 혁명 - 계급혁명이었어. 시민과 노동자가 귀족을 대신했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이 계급혁명의 불가능 때문이야. 현재 우리는 국체상으로 공화국이기 때문에 특권계급이란 존재하지 않아. 주권은 인민의 것으로 되어 있어. 이념상으로는 문제는 해결이 돼 있는 거야. 정치의 부패는 이념상의 악에서가 아니라 실천면에서의 시행착오로 받아들여도 록 사회 구조가 돼 있단 말야. 헌법은 좋은데 운용이 나쁘다는 것이지. 둘째 원인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와의 떨어질 수 없이 맺어진 연대 관계 때문이야. 우리가 사는 세기에서는 아프리카에서 흘러진 피는 프랑스의 지식인들을 노하게 만들며 코리아에서 모욕당한 민주주의는 워싱턴에서 걱정을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한 국가의 정치가 고립하지 않고 세계적인 관련 속에 들어 있단 말야. 가령 알제리인들을 예를 든다면 자기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자들과 자기들에게 하루속히 독립을 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꼭 같이 프랑스인이라는 사실은 기묘한 콤플렉스를 일으켜. 또 이승만 정부의 부패를 목인하는 것이 미국 정부인가 하면 이승만 정부를 아프게 꼬집는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 신문이라는 거야. 서양 사람들은 패를 두 장 가지고 있으면서 엇바뀌 던지는 거야. 그 사람들의 선의는 여하튼 후진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독이 되고 있어. 미국이 잘사는 것은 반드시 한국도 잘살게 되리라는 증명이 되지 못하는데도 '자유진영'이라는 이름으로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지.¹³⁵⁾

한국은 휴전 후 이념상으로는 계급의 분화가 나타나지 않는 공화국이고 대내외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정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혁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고준이 말하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는 모순된다. 이념상으론 계급의 분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135) 최인훈, 1977, p.96-97

결국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정치 구조를 보면, 대외적으로 계급의 분화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국이 이념상으로 공화국이란 선전은 같은 공화국인 미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가면을 씌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최인훈의 소설은 제국주의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한국이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제도적 장치가 수반된 외압적인 식민 지배보다 지속적인 내면화 과정을 거친 미국식 신제국주의는 피지배자인 한국의 근본적인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하는 위험한 요인이었다. 한국이 근대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시기에 근대 시민의 삶 속에 식민지 경험의 특성이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고 이를 경계하는 최인훈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논리로 미국에 맹목적 추종을 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인훈은 이러한 세태를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제도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사못 하나도 발명하지 않았다. 지성인이기 위해서는 될수록 많은 외국어를 알아야 할 형편이다. ...중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풍토에 이식된 서양이 아닌가.¹³⁶⁾

작품 곳곳에 서양은 “독립은 주고도 연방으로 얽어매려는 친구들”, “정치적 천재”, “서양은 야누스”라 표현하고 있으며 한국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 어느 축에도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말한다. 냉전의 시대에 미국이 대표하는 자본주의, 소련이 대표하는 공산주의를 두 축으로 하여 여러 국가가 두 진영에 각각 속해있으나 동등한 지위의 연방체로 성립되는 것이 아닌, 하부구조가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지배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제국주의는 단순한 축적과 획득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영토와 국민이 지배받기를 원하는 관념을 포함하는 현저한 이데올로기적 형성에 의해, 그리고 동시에 지배와 연대 관계를 갖는 지식이라

136) 최인훈, 1977, p.128

는 형태에 의해 추진된다고 말하였다.¹³⁷⁾ 제국주의는 식민주의와 구별되며, 식민주의는 제국주의의 결과이며, 거주를 정착시키는 것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해방 직후 미군정은 끊임없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형성을 통해 한국전쟁을 계기로 무력화된 한국의 지배구조를 잠식해 왔다.

더 땅을 넓히는 데는 서양식 민주주의자들의 가장 못된 방법인, 제국주의를 택했던 말이야. 보편성 없는 신과, 정의가 아닌 정치로 타민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겠나. 그들은 선량한 이웃이요 문화적 중매자였던 나라를, ‘요보상’으로 만들고, 절대한 문화적 은인인 이웃을 ‘장꼬로’로 만들었을 뿐이야. 서양 여러 나라가 동양에 와서는 족치고 멍들게 했을망정, 같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이렇게까지 해를 입힌 적은 없었어.¹³⁸⁾

독고준과 같은 지식인들은 당시 미국이 선의의 의도로 한국에 막대한 원조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미국의 원조는 표면상으로는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의 복구를 도와주려는 인도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미국의 잉여생산물을 원조물자로 제공하여 자유주의 진영에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거시적인 의도도 존재하였다. 이는 원조물자 가운데 장기적으로 한국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력, 생산재보다는 생필품이나 사치품 등의 소비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195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영화 『자유부인』(1956)에서 극중 인물 주선태의 대사 “뭐든지 최고급품으로 주십시오, 최고급입니까?”가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유행어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제 상품이 난무한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미 한국인들은 미국 제품을 먹고 입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다. 미국 유학을 갈 생각이 없냐는 유정의 물음에 독고준은 미국 유학에 흥미가 없으며 이미 한국 내에서 미국을 경험할 수 있으니 더욱이 유학은 필요없다고 말한다.

137) 에드워드 사이드, 박흥규 역, 『문화와 제국주의』, (서울: 문예출판사, 2005), p.60

138) 최인훈, 1977, p.218

외국 유학이란 게 선진국의 학술과 생활을 배우러 가는 것이라면, 이제 말한 것처럼 학문 쪽은 우리 같은 과(국문학과)에서는 유학이 무의미하고, 다른 한 가지, 즉 생활을 견문한다는 의미에서라면 더욱 필요 없는 일이지요. 우린 지금 민족 전체가 유학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미국 문화 아니에요? 앉아서 경험하는 데 뭣 하러 돈 쓰러 갑니까?¹³⁹⁾

독고준 마음속엔 이미 미국에 대한 “열등 콤플렉스”¹⁴⁰⁾가 깊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없애는 건 혁명이나 개혁인데 그는 그가 학생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되뇌이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혁명의 문제에 도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유정과 김순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다. 이유정과 김순임은 극과 극인 여성이다. 이유정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한국사회에 냉소적이면서 자유분방한 신여성이고 김순임은 그에 반해 왠지 자신의 불순한 동기를 반성하게 하는, “타락한 영혼을 구해줄 천사” 같은 순수한 기독교 신자이다. 독고준은 김학과의 술자리에서 김순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고통을 참는 사람처럼 그 자리를 파하고 돌아간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유정의 방으로 들어가 사라지는데 결국엔 독고준은 이유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천의지가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정체된 지식인의 위치로 돌아가겠다는 결말로 해석된다.

소설 전반적으로 독고준의 사고는 항상 제자리에 멈춰있다. 1950년대의 한국사회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쟁 전이나 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정체’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139) 최인훈, 1977, p.236

140) 최인훈, 1977, p.298

VI. 결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만들어내자 인류는 회의감에 빠지게 되면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기준이나 당위적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을 때 자유와 주체성을 얻는다는 실존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인간이 인간 존재 가치를 훼손시키는 전쟁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존재에 대해 돌아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겪은 후의 한국은 실존보다는 ‘생존’의 문제를 더욱 시급하게 여겼다. 오히려 유럽에서 건너온 실존주의 사상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실존의 본질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국가, 개인 존재에 대한 허무주의로 귀결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1950년대의 한국사회는 곳곳에 한국전쟁이 내재화될 수밖에 없었다.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물질 파괴보다는 정치, 사회, 문화 구조가 붕괴하고 윤리 의식, 도덕 등이 부재한 상황이 심각한 문제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도처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 그 틈을 타 들어온 미국식 제국주의는 또다른 식민주의를 연상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티나 클라인(Christina Klein)은 냉전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군사적 긴장뿐만 아니라 문화의 냉전을 겪고 있었다고 말한다. 미국의 핵심 목표는 아시아 예술인, 지식인, 대중문화 생산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세계주의(cosmopolitan)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1950~60년대 한국은 세계주의의 철저한 희생자임을 보여준다고 말한다.¹⁴¹⁾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주로 미국의 의견을 옹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반도 통일의 마지막 기회였던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의 의견은 묵

141) 세계 2차 대전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대두된 탈식민주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통치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이 어떻게 자신을 ‘제국주의적이지 않은 세계 권력’으로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오랜 고립주의를 탈피하여 세계 권력으로서의 자신을 재규정하는 문제”였다고 말한다. Christina Klein, “Cold War Cosmopolitanism: The Asia Foundation and 1950s Korean Cinem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22, No.2 (Fall 2017), pp. 282-283

살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제의 식민지 경험을 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 세계 국가들 간의 비동맹회의인 반동회의에 초청조차 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제3세계 국가들이 탈식민주의에 대한 담론을 펼치고 냉전의 새로운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지만 한국은 이를 외면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존재가 무시당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국인의 존재 가치는 인권이 위협당할 만큼 무의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전쟁 직후 빈곤한 상황 속에서 미군에 기생하여 생존을 모색했던 하우스보이, 양공주가 이에 해당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였던 당시 수많은 한국인들은 “국가는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등의 국가와 개인 존재에 대한 고뇌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지식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잃은 한국사회를 바라보며 개탄하고 고뇌하였다. 특히 1950년대는 한국의 엘리트 계층이 친미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미국식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고 미국식 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전후 한국 사회의 암울하고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지만, 현실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지식인들의 사고는 정체되어있고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의 방향은 폐허 속에서 길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지식인의 시도이기도 하였다.

1950년대 한국사회가 생명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까닭은 서구 문화를 추종하는 한국인의 욕망 속에서 느끼는 그들의 좌절이 곧 열등감으로 이어졌고 각성의 단계에 이르기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서구 문화가 풍기는 이국적인 이미지는 배고픔으로 가득 찬 한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의 비참한 현실과는 전혀 다른 미국의 풍족함은 더욱더 한국인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서구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과 물질적 풍요는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도피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멸시당하고 자국에서조차 정체성을 잃어버린 한국인은 놀라울 정도로 외국 문화를 모방한다. 하지만 서구 근대국가를 겉으로만 모방한다고 해서 똑같아질 수는

없다. 여기서 한국인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드디어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각성의 단계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엔 국가 재건의 의지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재건이 불가능한 국가로 인식하였다. 신문, 잡지, 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서구 문화를 접하면서 그에 대한 환상으로 전후 현실을 잊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점점 환상은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상상으로 서구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나는야 꿈꾸는 아메리칸 아가씨’란 노래 가사를 불러보기도 하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는 수용은 혼란으로 다가올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 한국인은 여기는 한국이고, 나는 한국인임을 깨닫게 된다. 개인적 차원의 존재 문제가 결코 국가적 차원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개인은 국가 곳곳에 숨어있는 의도적인 장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특히 국가 간 문화적 접촉이 1950년대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1950년대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외면당한 위성국가, 후진국이었던 한국의 존재 문제를 둘러싼 고통은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국제정치학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는 문제라 생각한다. 또한 1950년대 한국의 자기 존재의 인식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는 후진국의 발전 국가 모델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차 자료(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국제신문』

1차 자료(잡지)

『여원』

『신동아』

1차 자료(외교문서)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81

2차 자료(논문)

강경화. 2017. “양공주의 자기인식 양상과 삶의 방식에 대한 고찰 - 해방기와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1집

강소연. 2006.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보』. 18집.

권보드래. 2008.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1950년대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한국문학연구소』. 35권

----- . 2010. “민족문학과 한국문학”. 『민족문학사학회』. 44권

- 권오중. 2005. “제네바 한국평화회담(1954)의 진행, 결과 그리고 의미.” 『통일정책연구』. 제 14권 2호.
- 김려실. 2010. “195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미국적 가치”에 대한 양가성- 한형모 프로덕션의 영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42호
- 김양화. 1992. “한미수교 110년, 조약을 통해 본 불평등의 역사 1950년대 경제협정”, 『역사비평』
- 김연철. 2011. “1954년 제네바 회담과 동북아 냉전질서.” 『아세아연구』 제 54권 1호.
- 김영호. 2016. “이승만의 국제정치관에 관한 연구: 일반내막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38권 1호.
- 김은하. 2006.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걸(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6집.
- 김준현. 2016.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 관련 풍속에 대한 대중 인식 변화: ‘유엔마담’과 ‘양공주’에 얽힌 대중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9호.
- 김진호. 2006. “약소국 적응 정치론” 『한국학술정보』.
- 김현주. 2007.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18호.
- 박찬웅. 1998. “국가능력과 국가 개입방식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 『한국사학회』 . 제32집.
- 서대정. 2007. “미국 대중문화가 한국인의 가치관에 끼친 영향 연구 - 1950년대 영화와 음악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4호
- 신욱희. 1992. “동아시아에서의 후견- 피후견 국가관계의 동학: 국가변화의 외부적/지정학적 근원.” 『국제정치논총』 . 제32집 2호.
- . 2004.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한국 정치외교사논총』. 제26권 1호.
- 김현숙. 2006. “GI와 PX 문화를 통해 본 미국문화”, 『상허학보』. 18권
- 노지승. 2013. “1950년대 후반 한국에서의 서구영화의 수용, 그 초국성(transnationality)과 무의식”. 『한국 현대 문학회 학술발표회 자

료집』

- 노지승, 옥상효. 2015. “1950년대 한국 영화의 할리우드 영화 모방 양상 연구”, 『한국학연구』. 제 38집 8호.
- 박태균. 2007.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경제부흥 전략.”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8권
- 박현수. 2016. “한국문학의 ‘전후’ 개념의 형성과 그 성격.” 『한국현대문학연구』. 49권
- 서대정. 2007. “미국 대중문화가 한국인의 가치관에 끼친 영향 연구”, 『현대영화연구』. 4호
- 서희경. 2011. “이승만의 정치 리더쉽 연구: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2호.
- 배지연. 2015. “최인훈 소설의 정치적 지향과 그 기원으로서의 서구 근대 사상”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6권
- 옥창준. 2015.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아시아 아프리카 상상.” 『한국문화연구』. 28권.
- 이나영. 2008.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호. 4권.
- 이봉범. 2015.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 1950년대~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 문화.” 『한국학연구』 39호.
- 이선미. 2006.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상허학보』 18권
- 2009. “1950년대 미국유학 담론과 ‘대학문화’: 연희춘추의 미국관련 담론과 기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5권.
- 이상경. 2007. “1950년대 한미관계와 한국문화의 변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완범. 2007,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30권.
- 이임하. 2000.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호.
- 이준희. 2007. “195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두 모습, 지속과 변화.” 『대중

- 서사연구』. 13권.
- 이하나. 2012. “감성과 공공성: 감성의 역사를 묻다; 반공주의 감성 기획, ‘반공영화’의 딜레마- 1950년대~60년대 ‘반공영화’ 논쟁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59호.
- 장준갑. 2002.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1953-54): 냉전외교의 한계.” 『미국사연구』 15호.
- 정재림. 2012. “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46호
- 주영중. 2015. “박인환 문학의 미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 연구: 1950년대 시와 산문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 69호.
- 주철희. 2016. “한국전쟁 전후 반공문화 형성과 그 의미: 반공영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 59권.
- 차상철. 2001.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제 13권.
- . 2009. “이승만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미국사연구』. 제 29권.
- 최정운. 1998. “국제정치에 있어 문화의 의미.” 『세계정치』. 22권 1호.
- . 2007. “문화와 권력.” 『세계정치』. 28권 1호.
- 허은. 2005.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교육교환 계획과 한국사회 엘리트의 친미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4집.
- 허윤. 2013. “1950년대 양공주 표상과 변전과 국민되기 -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1권 1호.
- 황병주. 2008. “1950년대 엘리트 지식인의 민주주의 인식.” 『한국사학회』. 89권
- 홍용표. 2006.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호. 1권.
- 홍윤표. 2015. “한일 전후 소설에서의 ‘팡팡’과 양공주 표상: 전쟁 기억의 재현과 은폐.” 『아시아문화연구』 40권.
- Klein, Christina. 2017, "Cold War Cosmopolitanism: The Asia

Foundation and 1950s Korean Cinema."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22, no. 2. p281-316.

2차 자료(단행본)

- 강준만. 2009.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2,3』. 서울: 인물과사상사.
- . 2010. 『미국사 산책 8』,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권보드래. 2012. 『1960년을 묻다』. 서울: 천년의상상
- . 2009.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서울: 동국대출판부.
- 김건우. 2003,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서울: 소명출판.
- 김영희. 2009,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1880-198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주현. 2012. “『사상계』 동양담론 분석.” 사상계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서울: 소명출판.
- 김학재 외. 2016.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서울: 창비.
- 박완서. 2015. 『쑥스러운 고백』. 파주: 문학동네
- 브랜드스토리. 2012. 『K-POP의 고향 동두천』. 서울: 멋진세상
- 브루스커밍스. 조행복 옮김. 2017. 『브루스커밍스의 한국전쟁』. 서울: 현실문화연구
- 손우석, 이해숙, 2003,. 『한국 대중음악사: 통기타에서 하드코어까지』. 서울: 리즈앤북.
- 손창섭. 1996. 『잉여인간』. 서울: 민음사
- 송병수. 1979. “쑤리 김” 『현대한국문학전집』. 14권,
- 에드워드 사이드. 박흥규 옮김. 1994. 『문화와 제국주의』. 서울: 문예출판사
- 이대근. 2002. 『해방 후, 1950년대 경제: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영미. 2017.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 서울: 인물과 사상사
- 최봉영. 2002. 『한국문화의 성격』. 파주: 사계절.

- 최인훈. 1977. 『회색인』. 서울: 문학과지성사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서울: 풀빛.
- . 2013. 『한국인의 탄생』. 서울: 미지북스.
- . 2016. 『한국인의 발견: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힘의 정체를 찾아서』. 서울: 미지북스
- . 2016. 『지식국가론』. 서울: 이조출판사.
- 하정일. 2002. 『분단 자본주의 시대의 민족문학사론』. 서울: 소명.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 한국 현대사의 재인식7』. 서울: 백산서당.
- 허은. 2008.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민족주의: 냉전 시대(1945-1965)의 문화적 경계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홍성원, 2000. 『남과 북 6』. 서울: 문학과지성사.

Bruce Cumings, 1998, Korea`s Place In the Sun, New York: Norton
 Don Oberdorfer, Robert Carlin, 2013,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데이터베이스

김원희 칼럼니스트 <http://soxak.com/posts/2600#direct>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컬렉션 토픽

<http://theme.archives.go.kr/next/625/warResult.do>

국가기록원,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http://theme.archives.go.kr/next/movie/help01.do>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home/index.do>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self existence through contact with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1950's Korea.

RYU, YOONYO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ight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on July 27, 1953, the human and material damage suffered by Korea was so great that the reconstruction of Korea seemed impossible. When Korea, a country with a colonial experience, underwent even a war, Korean people did not think about the reconstruction right after the end of the war. They only thought about survival of themselves and their nation. The process of Korean people's becoming aware of the value of themselves beyond the problem of survival gives great significance to Korean development model.

It was confirmed through cultural phenomena and literary works that Korea in the mid to late 1950s showed such an aspect after the Korean War.

The key question in this study is "How did Korea recognize its backwardness in the mid to late 1950s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research on economic growth to discover how Korea, which was very poor right after the Korean War, became a great economic power within such a short period.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into the process where Korea started reconstruction in full scale with the people's will for reconstruction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awareness of national existence. In other words, the process, in which Korea recognized its backward reality and reached a conscious awakening to escape from it, can be considered as an essential process for raising the value of the people and the na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the 1950s, Korea had an insignificant value of existence like an invisible man. One of the agenda of the Geneva Conference, which was held in 1954, was a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However, the opinion of Korea was not actively reflected in whether or not the talks should be held, the method of the talks, and the result of the talks, etc. The Bandung Conference was held in 1955 showing the resistance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that criticized the new imperialism in the Cold War system. Most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ere Asian and African countries with colonial experience. However, Korea, which had the same experience, was not even invited to the conference. In Korea, too, the existence value of individual Korean people had been greatly reduced. 'House Boys', who managed to feed and house themselves while doing the chores of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Korea in large scale during the Korean War and 'Yangongju', who were despised while whoring themselves to the US soldiers, can be regarded as a unique social phenomenon of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refore, Koreans' desire to escape from the reality was sometimes expressed in a unique cultural phenomenon that blindly pursued Western culture, because Korea's value of existence could not be recognized anywhere in the world.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fantasy of western culture which was prevalent in newspapers, magazines, novels, popular songs and movies in the mid to late 1950s of Korean society and to look into the inner side of the Korean people trying to forget the backward reality of Korea at that time. The confusion of their identity occurred even in the attempts to envy and imitate Western culture and it led to the consciousness and awakening of the backward reality. Especially in some novels in the late 1950s, the awakening of the backward reality was evidently expressed by the intellectuals.

Ultimately, this study on the process of Korea's realizing its value of existence through the contact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1950's could be a new consideration for a model of na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a new perspective by looking at those aspects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rather than an economic point of view.

Keywords : Korean War, National Identity, State class, Post-war literature, International Society

Student Number : 2015-22497